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일시 2024. 3. 15. (금) 10:00~12:30

장소 서울대학교 삼익홀  생중계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DA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통계청
통계개발원



KOSSCA
한국 사회 과학 자료원



프로그램

시 간	세 부 일 정
10:00-10:10 (10')	개회사: 최연옥 통계청 차장
10:10-10:30 (20')	기조연설: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내 격차 김석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10:30-11:50 (80')	주제발표 발표 1: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발표 2: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권현지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3: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4: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11:50~12:30 (40')	종합토론 좌 장: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토 론: 윤인진 고려대학교 교수, 김경배 세종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 Contents

기조연설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 내 격차

김석호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7

주제발표

발표 1: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 상명대학교 교수 31

발표 2: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권현지 | 서울대학교 교수 43

발표 3: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51

발표 4: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 서강대학교 교수 69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발표자의 견해이며, 주최 측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상세한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통계개발원 > 발간자료 > 한국의 사회동향
 - 주소: <https://kostat.go.kr/menu.es?mid=a90104010100>
-



기조연설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내 격차

김석호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서 본 청년 세대 내 **격차**

김석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1

목차

-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 02 수도권 집중, 격차 형성과 악순환의 시작
- 03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 06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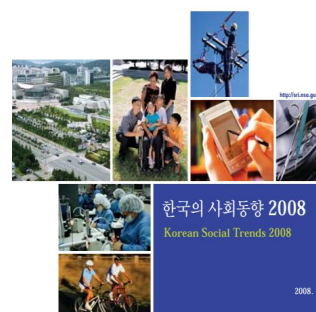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3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 보고서인 『한국의 사회지표』에
상응하여 발간되는 연차적 정기 간행물로서, 한국 사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사회 변화와 상황을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설명해주는 서술형 통계보고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방대한 양의 통계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의 ‘삶의
질’ 상황이 어떠한지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의
사회지표』의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2008 서론 첫 문단)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kstat.kstat.go.kr>

4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한국의 사회동향의 주제 구성과 청년

- 영역: 2019년 개편 사회지표체계 반영 **12영역으로 구성**
 - ✓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웰빙
- 영역별 논문: 영역별 총괄논문 1편과 주제논문 1~2편으로 구성
 - ✓ 총괄논문: 해당 영역의 주요 변화를 전체적으로 개관
 - ✓ 주제논문: 시의성 있는 주제로 **영역간 크로스커팅 이슈**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
- 청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청년을 크로스커팅 이슈로 설정
 - ✓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2023)
 - ✓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2023)
 - ✓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2023)
 - ✓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의 영향 (2022)
 - ✓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2022)
 - ✓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 (2021)
 - ✓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2020)

5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다중 격차의 조건과 미래세대



6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다중격차 앞에선 미래세대

-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 존재하게 될 사람들로, 현재의 아이들부터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Edward Page 2007)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되 **현재 세대가 사라진 이후에 등장할 미래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세대 간 ‘정의’의 원칙이 미래 세대 개념의 핵심

→ 미래세대와 청년은, 배제되고 소외되며 잊히기까지 하면서 **이전 세대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미래세대 청년에게 가해지는 ‘다층적인 변화 압력’과 그 결과로서의 ‘갈등·균열 전선’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7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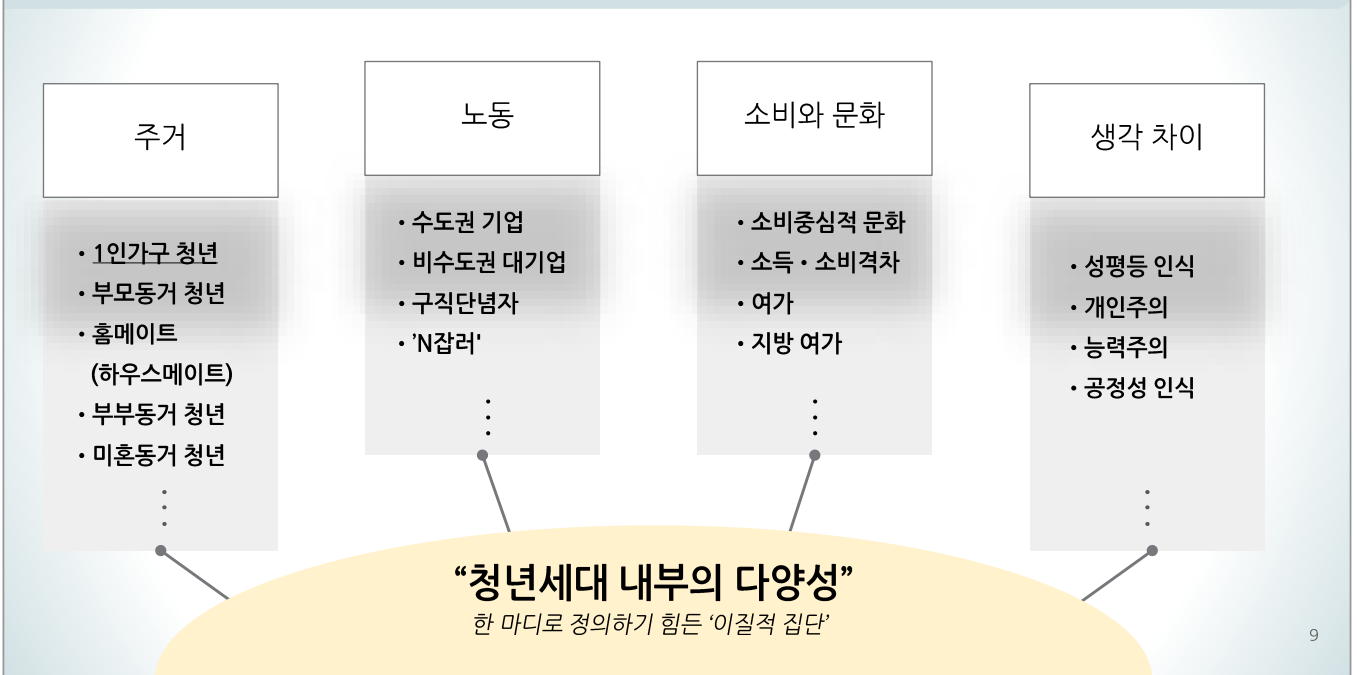
청년 담론을 벗어나 청년 바라보기

- 미래세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을’의 입장에 있으며, 생애주기적 구분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모색하거나(정우준 2019: 70), 과도기 노동을 수행하거나 노동시장 진입 직후에 있는 취약집단으로 그려짐
- 한국 사회 담론장에서 청년을 취약집단으로 다루는 경향의 문제점
 - ✓ 청년의 미성숙에 대한 전제: 현재와 다른 미래가 있어야 한다는 집단 강박의 결과이자 청년의 취약성이 특수하고 불완전한 청년의 위치 때문이라는 착각의 산물. 하지만 청년은 미성숙한 존재도 아니고 청년의 취약성을 집단의 특수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들의 문제는 사실 다른 모든 세대에서도 존재하는 불평등이나 빈곤 등의 문제와 다를 바 없으며, 우리 모두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청년에게 투영하는 것일 뿐
 - ✓ 집합적 취약성의 오류: 청년의 취약성을 강조하면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청년’을 이념형적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해 문제 진단과 처방, 해법에 있어서 편한 길을 찾았을 가능성.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 행위, 가치, 태도에 있어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청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안 제시에 도움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또는 미래세대 내부의 균열과 격차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

8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9

01 한국의 사회동향과 청년

청년 담론을 벗어나 청년 바라보기

- 본 발표문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청년실이 설치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오른 청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청년 내부의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 최근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다룬 청년 관련 통계, 해당 통계에 대한 추가 분석, 발표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내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설명하고자 함
 - ✓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부모 세대 불평등의 세대 재생산을 통해 공고해지는 경제적 격차, 관계적 격차, 심리적 격차를 확인하고, 이러한 다중 격차가 미래 격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드러냄
 - ✓ 청년의 삶과 마음에 대한 오해를 분석 결과에 기초해 바로 잡기를 시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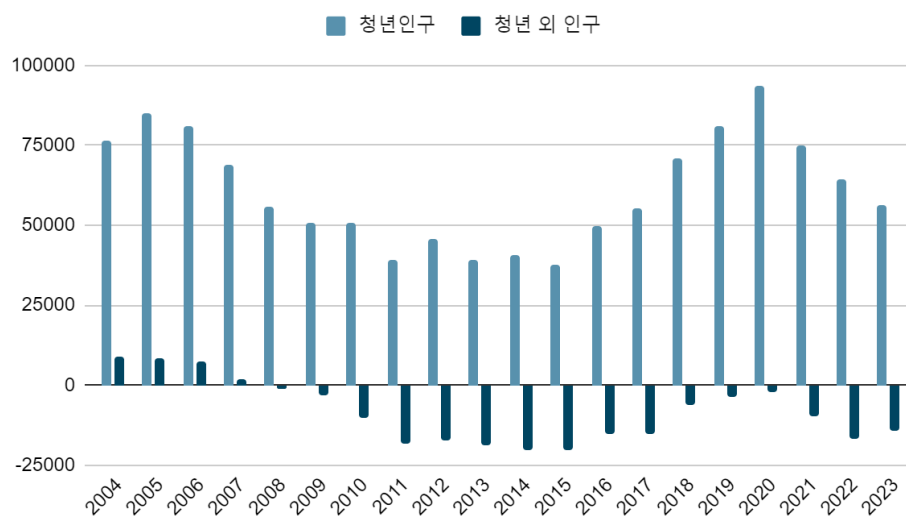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11

02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순이동인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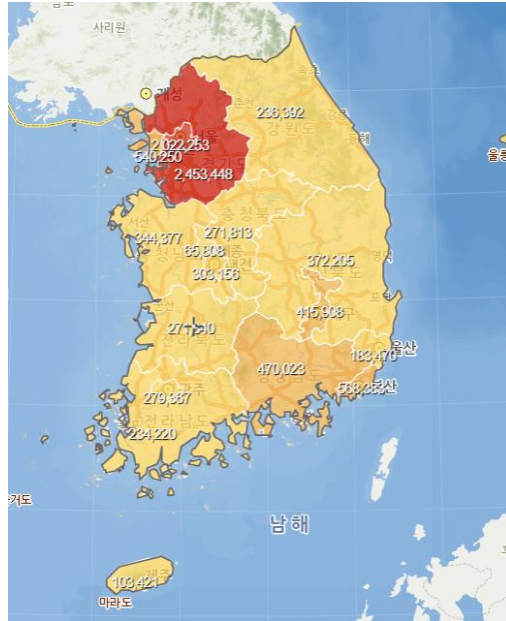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04-2023)

12

02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청년 인구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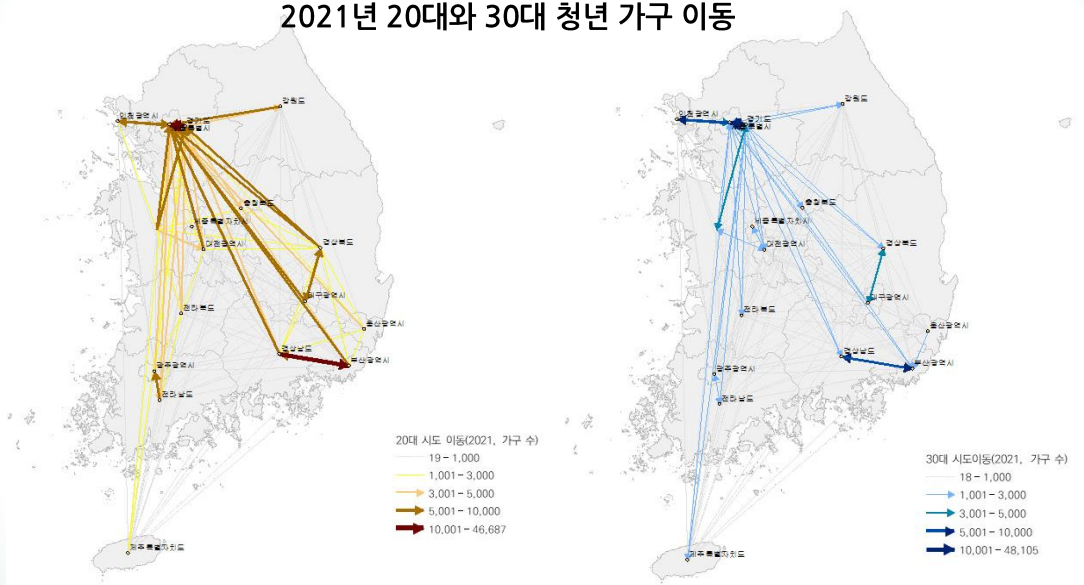
2022년
20-34세 청년
인구 분포 지도

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구총조사

13

02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2021년 20대와 30대 청년 가구 이동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1)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에서 인용. 20-39세.

14



02 수도권 집중, 격차 악순환의 시작

2020년 인구구조 분포



시군구 단위의 성별·연령별 인구수 토대의 20년간의 지역 인구구조 변화

2000년, '대도시형'(25.5%), '구도시형'(43.0%), '신도시형'(18.2%), '농촌형'(13.6%)

2020년, '인구유지형'(28.7%), '청년유입형'(47.1%), '중년유출형'(19.3%), '청중년유출형'(4.9%)

인구유지형
청년유입형
중년유출형
청·중년유출형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지방지표」, 각 연도.

15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16

03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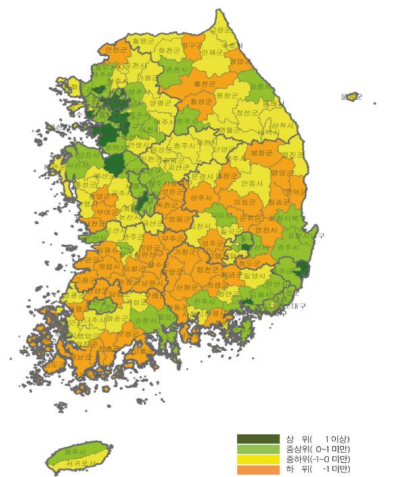
고속런 고임금 일자리, 서울에 쏠리다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하락하는 데에 비해, 수도권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산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서 고임금 일자리가 증가



고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고속런 청년층, 수도권으로 집중

자료: 이상호,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역 고용동향브리프 2019 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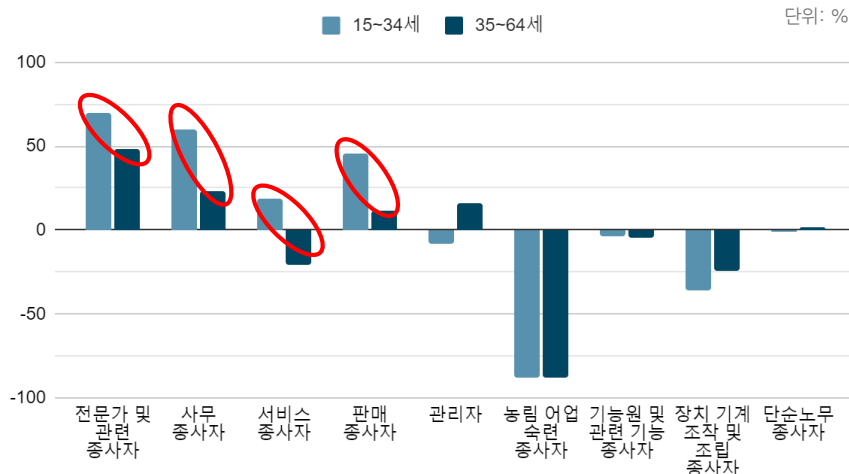
시군구별 일자리 질 지수 분포 (2015)

17

03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고속런 고임금 일자리, 서울에 쏠리다

직종별 취업자 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직종별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특히 15-34세에서 크게 나타남

(강동우, 2023)

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비율(%)은 $\frac{(\text{수도권 취업자 수} - \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text{비수도권 취업자 수}} \times 100$ 으로 계산

주: %값이 높을수록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 취업자 수에 비해 많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A형) (2020) - 강동우(2023)를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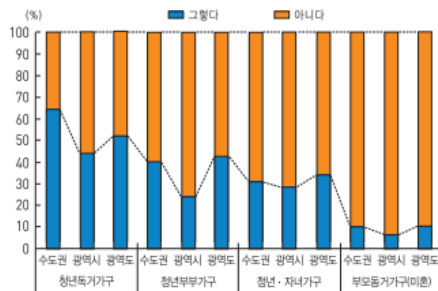
18



03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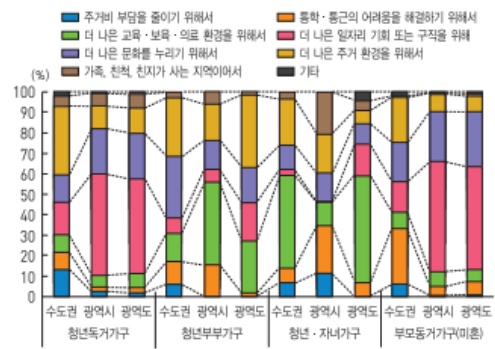
고속런 고임금 일자리, 서울에 쏠린다

학업 또는 일자리 이유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 해 오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타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이유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19

03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존재하는 격차

경향신문 기획, <지방 소녀들은 어디로>

'청년은 무엇 때문에 고향을 떠나나', '떠난 이들이 향하는 곳은 왜 수도권이며 왜 돌아가지 않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강릉과 고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65명의 여성들 인터뷰 조사.



교육기관
인턴 기회
...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황

긴 이동시간
수도권 주거비 부담
...

노동시장
진입의 격차

“강릉에 있었다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자산 운용사는 서울에 몰려있고 다른 금융기업의 지방 영업점들은 인턴을 뽑지 않거든요.”

“제가 차 안에 있던 그 시간에 서울 친구들은 연습을 더 하면서 진도를 뺄 수 있었어요. 확실히 그 친구들이 취업도 빨리 했어요.”

20

03 청년들,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정주 여건과 성장의 기회 역시도 서울로

- 청년에게 정주여건은 주거, 문화·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및 성장가능성 등을 포괄. 즉, 청년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데는, 총체적인 **삶의 질**이 고려 대상 (조성철 등, 2019)

“친구 중 하나가 같은 그룹사 중 지방에 있는 화학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화학사는 연봉이 서울에 있는 그룹사에 비해 상당히 많고, 주거 지원도 된다. 생활비도 매우 싸다. 그러나 그 친구는 서울로 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봉 등 경제적인 것은 지방에 근무하면 더 높을 수 있으나 그렇게 모은 돈을 사용하기 위한 기회나 시설이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왜 지방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지방에서는 퇴근 시간 이후에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나 시설이 없으며,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도 없다. 그 동료의 말에 따르면 지방에 있으면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2022)

21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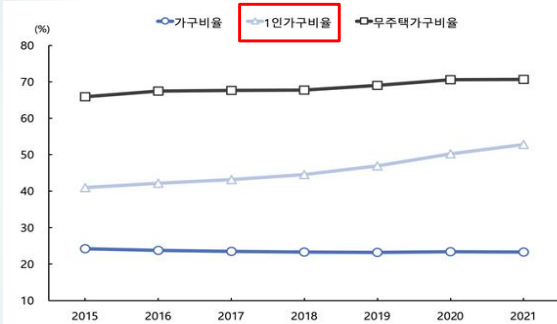
22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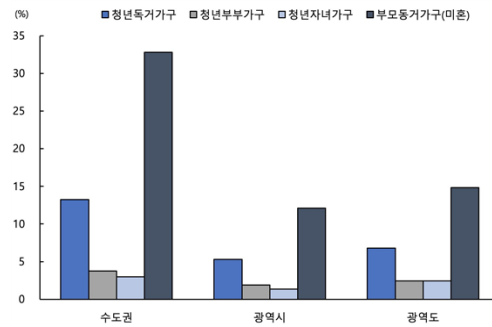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

청년 1인 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1



주: 40세 미만인 청년으로 가정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1」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 인용)

청년 가구 유형별 비율, 2022



주: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 인용)

- 1인가구 비율이 2015년 41.0%에서 2021년 52.8%로 눈에 띄게 증가

- 부모동거가구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청년독거가구가 많은 순.
-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청년독거가구가 비율이 더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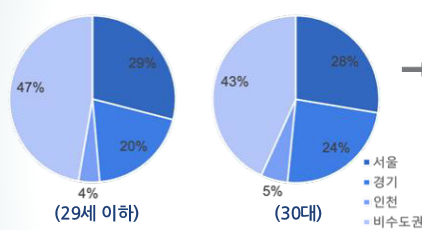
수도권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청년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이는 청년들이 가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삶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함

23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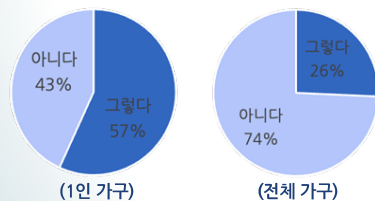
1인 가구 청년: 미래를 위한 선택

1인 가구 지역별 분포



→ 청년 1인 가구 중
29세 이하는 53%,
30대는 57%가
수도권에 밀집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 학업 또는 일자리 때문에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이사
했다는 비율은 전체에서는
26%에 그치나, 1인가구
의 경우에는 그 두 배가 넘
는 57%에 달함

-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학업 또는 일자리와 같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주거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답함
- 또한, 1인 가구 청년 중 역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즉, 양질의 학업 또는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된 청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음

가족과는
구분되는
독립적 주거
문화를 형성

1인
가구
청년

학업·취직 등
미래를 준비하
기 위해 선택한
주거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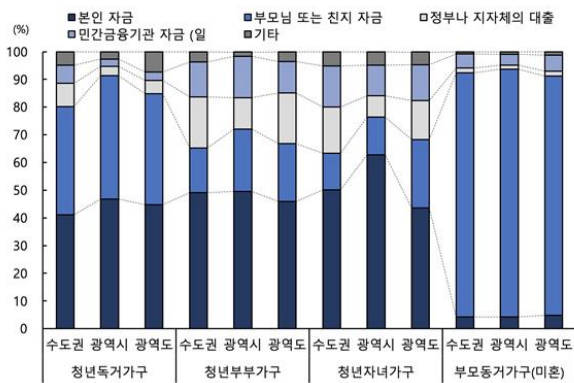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2022)」

24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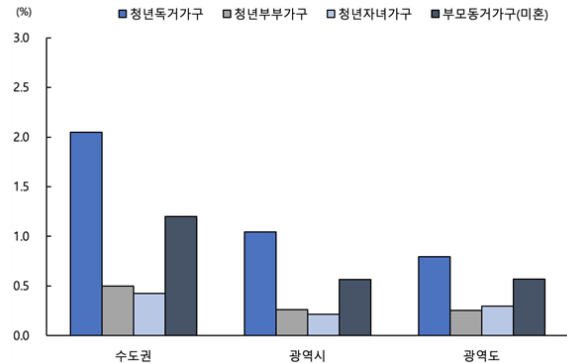
주거 비용 부담의 문제

주거자금 부담자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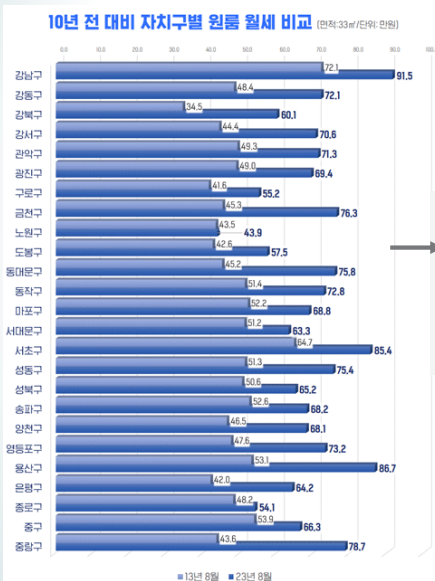
주거불안 경험,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월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등 주거불안 상황을 1개 이상 경험한 응답 비율임.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5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평균 69만원

10년 전에 비해 40% 이상 상승

청년 개인 월평균 소득

구분		평균금액(만 원)
전체		180
성별	남자	192
	여자	167
연령	19-24세	77
	25-29세	209
	30-34세	266
지역	수도권	188
	비수도권	172

전체 월평균 소득의 약 38.3%, 19-24세의 경우엔 약 89.6%에 육박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스테이션3(다방 플랫폼)에서 인용

자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26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서울vs지방 격차에 대한 인식

홈 >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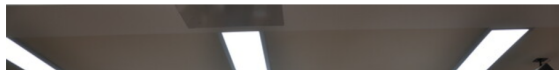
20대 실제 갈등은 성별 보단 '서울vs지역'

A 윤서진 기자 | © 입력 2022.05.04 13:18 | © 수정 2022.05.04 15:02 | 댓글 0



- 우리 대학 사회과학연구원 발표
- 남녀갈등 심각하단 우려와 달리
- 실제 경험은 수도권과 지역간 차별

최근 우리 사회 청년들 간 남녀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서울과 지역 간의 갈등'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는 다양한 갈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정 세력이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갈등을 자극해 우리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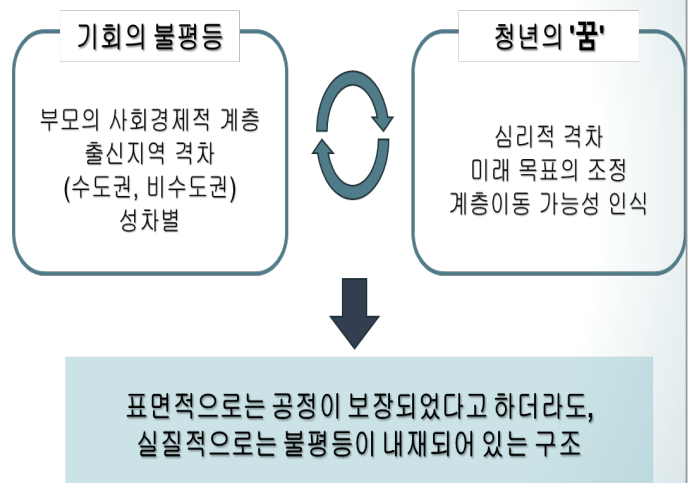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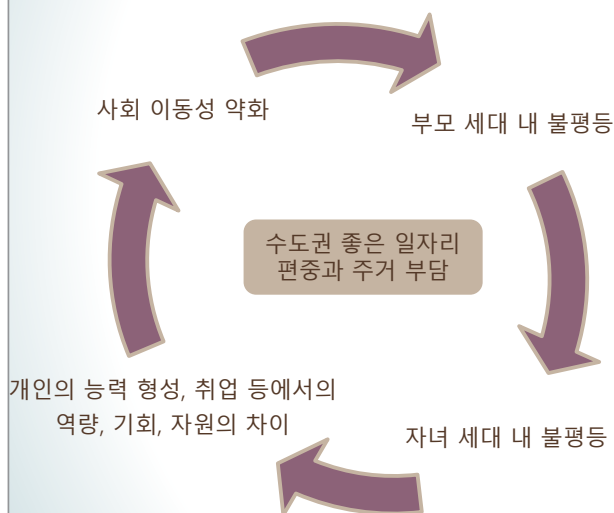
광각렌즈로 바라본 청년들에게서 새삼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수도권 외 지역 거주 청년들의 상당수는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주로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부족**이 그 이유로 꼽혔다. 특히 서울에 친척 집이 있거나 서울을 오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생활을 더욱 갈망했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청년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라고 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하지 못한 국가발전상의 문제를 지역 청년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모든 자원이 서울로 쏠리는 상황은 수도권과 지역을 수직으로 분화시켰다.**

(서혜미, 2019-12-02,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 "계층 이동 가능성 크다" 6명뿐>, 한겨레)

27

04 청년 주거 - 부모 지원의 불가결성

기회 불평등과 가난해진 꿈



김석호, 2019. 한국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에서 인용

28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29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불평등한 청년세대

세대 내 심각한 불평등 1순위

N=1,000

순위	불평등 분야	응답률(%)
1	청년사이 자산 불평등	33.0
2	청년사이 소득 불평등	26.6
3	청년사이 고용 불평등	16.2
4	청년사이 주거 불평등	10.5
5	청년사이 교육 불평등	7.2
6	청년사이 가족형성 불평등	5.9
7	기타(건강, 장학금, 성별)	0.4

친구들이 볼 때 본능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비트코인 몇 번 해서
 번만큼의 돈을 절대 획득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이고...
 2015년부터 한국사회에서 많이 회자됐던 수저 계급론 이런 것도 있
 을 것 같고, 자신이 이제까지 부모님 세대가 거쳐 왔던 첫 직장을 잡고
 거기에서 자산을 축적해서 몇 년 내에 집을 사고 이런 식의 **생애 과
 업을 이행해 나가는 코스 자체가 극단적 도박이 아니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 연구자1)

자산 불평등이 1순위로 나오고 있는 건... 그게 약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2)

어떤 노동시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초기 임금도 많은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가시적인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나 있고 그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 각인이 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을 했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청년 연구자 3)

주: 2020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20세~39세 청년 대상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2020 - 표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와 불평등>에서 인용

30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물질적 격차

- 취업 이후에도 주거비로 인한 정기적 지출, 부채 상환 등의 문제로 재산 축적 및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발생

서울의 게임회사에 다니는 이모씨(23·부산)는 “**고향에 있는 대학에 다녔더라면 집 한 채는 샀을 것**”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되뇌다. 강원 태백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공모씨(29)는 “**서울살이는 돈을 벌고 서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 수도권(서울)에 살기 위해 원래 거주하던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기도

황xx씨는 서울을 ‘나쁜 심장’이라고 표현했다. **자원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지방과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 피를 온몸에 내보내야 하는데 머금고만 있는 것 같아요. 순환이 안 되니 지방 발전은 더디죠.”

인터뷰 출처: 경향신문, <[절반의 한국] 서울은 ‘나쁜 심장’ 같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2021.10.08.
(링크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80600065#c2b>)

31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심리적 격차

- 수도권 출신은 여러 유형의 자원을 얻을 가능성이 큰 특권으로서, 지역의 격차가 계층 격차로 인식됨

“**수도권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출발점이 달라요.** 누릴 수 있는 ‘문화자본’과 ‘인간자본’에서 차이가 크니까요. 서울 출신들은 금수저, 은수저에 버금가는 ‘서울수저’ 아닌가요.”

- 26세, 부산 교사 H

“**실제로 뭘 얻진 않더라도 얻을 가능성을 얻는 것**”

- 26세, 부산 출신 제주 공기업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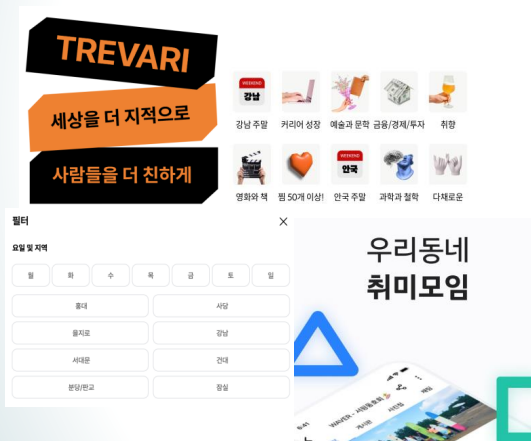
- 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그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

인터뷰 출처: 경향신문, <[절반의 한국] 서울은 ‘나쁜 심장’ 같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2021.10.08.
(링크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80600065#c2b>)

32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관계적 격차



- 수도권에 청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또래와의 관계 형성 기회 역시 차이가 발생
- 최근 많은 수요가 있는 소모임 시장. 그러나 오프라인 모임은 대부분 수도권(서울)을 거점으로 함
- 지역 기반 모임 플랫폼 역시 이용자 수의 차이로 관계 형성의 기회와 경험이 다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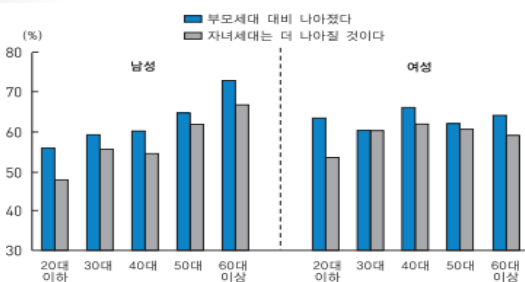
자료: 모임 플랫폼 <트레바리>, <소모임>, <넷플연가>

33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간파된 현실, 달라지는 꿈의 내용과 크기

성·연령별 생활수준의 현재와 미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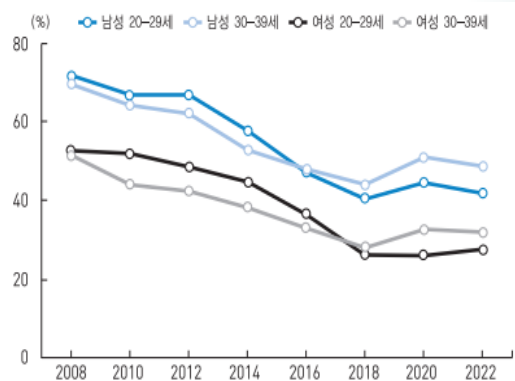


주: 1)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각 '귀하의 현재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에 비해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훨씬' 혹은 '약간'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과 '귀하의 자녀들이 귀하의 현재 나이가 될 때 자녀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훨씬' 혹은 '약간'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1 누적데이터」, 원자료, 2022.

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주: 1) 20-30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격차로

간파된 현실, 달라지는 꿈의 내용과 크기

DEVELOPMENT AND SOCIETY
Volume 47 | Number 3 | September 2018, 347-370
DOI 10.21588/dns/2018.47.3.002

Special Issue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SEOKHO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JUNG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KYU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JI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OHJAE GOWEN | HARVARD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in understanding the ways that contemporary youth pursue their dream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rational aspect of "dreaming" or "non-dreaming" by employing two concepts: dream-capital and penetration. In this paper, dream-capital is conceptualized as a seed that facilitates the accumulation of other capitals. It is the total capacity to dream and is composed of four dimensions: imagination,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Penetration is defined as the "cognitive judgment about the (un)realizability of dream." It refers to the discrepancy that exists between judgment about the capacity, condition and qualification required to fulfill one's dream and judgment about the extent to which one thinks she is equipped with that capacity, condition and qualification. Penetration consists of four factors: individual traits,

‘간파(pene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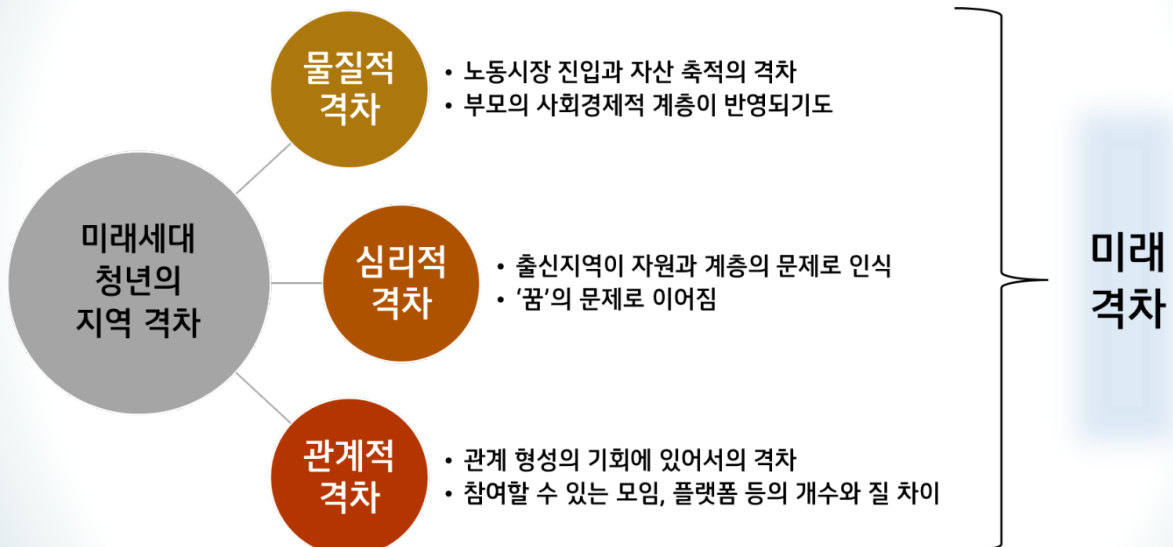
개인의 꿈이 자신의 능력, 노력, 타고난 재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달리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

꿈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수준과 실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준 간의 차이를 인식한 행위자가, 실현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 만들어내는 사회심리학적 구성물

개인은 외부에서 제공한 단서를 유추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해석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따라 꿈을 설정

the "cognitive judgment about the (un)realizability of dream."

05 현재의 격차가 미래의 다중 격차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37

06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청년세대를 그리는 고정된 이미지들

M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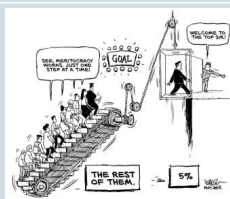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울러 지칭하는 신조어로서, 주로 1980년대생부터 2010년대 초반생까지를 이른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20대와 30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이전세대로는 X세대, 그 이후 세대로는 알파세대가 주로 언급되곤 한다

개인주의·이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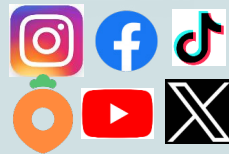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함.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2)』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디지털 네이티브



위계질서, 경직된 조직문화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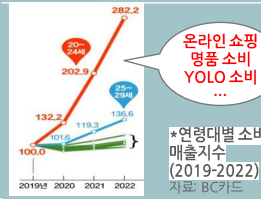
연차 이유 밝히지 않았으면

상급자 식사 시 동행 안 해

젊은 직원만 차출은 불합리

*사라졌으면 하는 관행에 대한 신규공무원들의 의견
저술시, 『직원동행 프로젝트(2023)』

소비중심적 문화



확실한 자기표현·자기주장

소비를 통해 자기 가치 실현

SNS로 자기 생각을 표현

즐거는 일에 투자, 재미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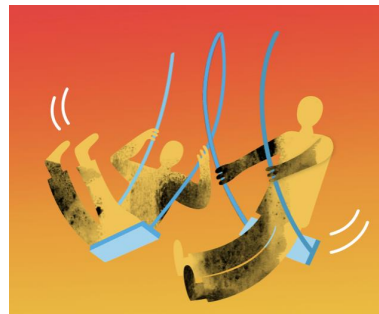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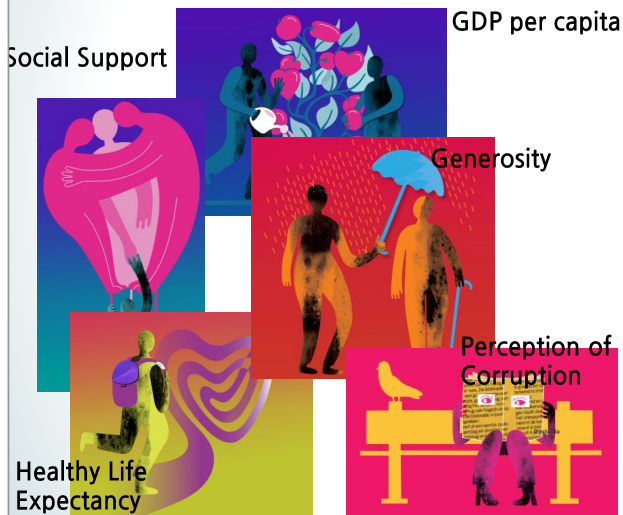
취향을 공유하면서 서로 존중

*빅테크·핀테크 CEO들이 꼽은 MZ세대 핵심 특징
헤럴드경제, 『MZ세대 금융생활 설문조사(2022)』



06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자율성(Freedom to Make Life Choices)이란?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UN 세계행복보고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

소득, 건강, 사회적 지지, 관용, 사회의 부패 인식, **자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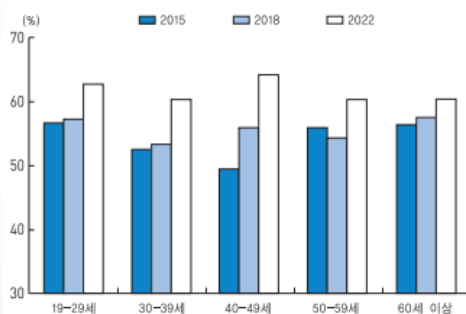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자유롭게 한다는 인식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

39

06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청년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인식과 행복

삶을 결정하는 자유 인식 비율, 2015, 20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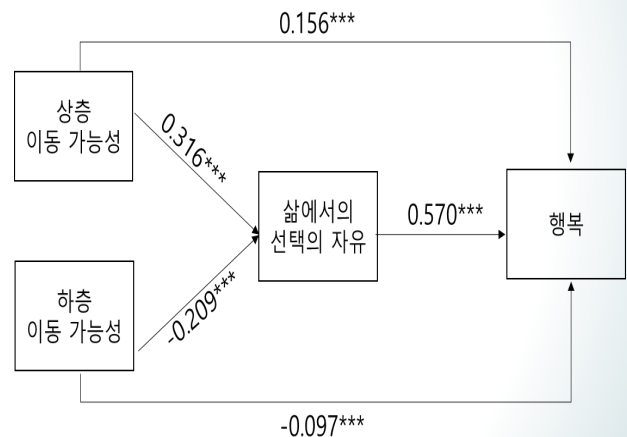


주: 1) 통계청은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자유롭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냄.

2) 2015년, 2018년 60세 이상은 60-69세를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삶의 선택 자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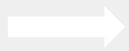
김석호. 2022. 한국 청년의 삶, 마음, 행복에서 인용

40

06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자율성(Freedom to Make Life Choices)이란?

- 한국의 수도권 - 비수도권 격차는 물질적, 심리적, 관계적 격차를 통해 청년들의 삶 전반 - 행복에서의 차이로 나타남
- 현재 • 미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역시 지역적 격차가 반영. 간파(penetration) 메커니즘을 통해 꿈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꿈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



한국의 공간적 • 지역적 맥락이 청년들의 삶 전반과
이들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

41

감사합니다.

42



발표 1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 상명대학교 교수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발표자료〉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목 차

I. 도입

II. 세대 간 가계재무 상태의 변화

1. 가계소득
2. 가계부채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III. 시사점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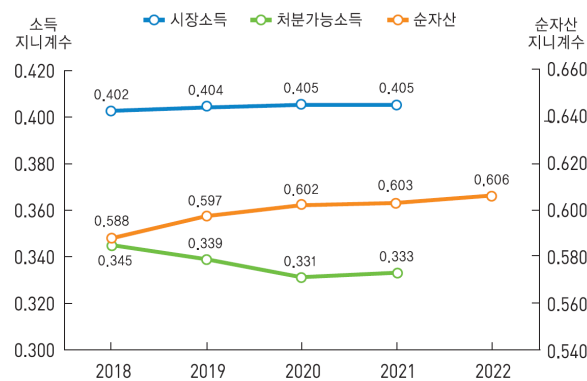
도입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구배경

- ❖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시장소득 측면에서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으며, 부의 분배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공적 소득이전 등으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이 역시 최근에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 1] 소득 및 순자산 지니계수, 2018-2022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연구배경

❖ 코로나19 전후 경제 상황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 미래 경제 및 사회의 핵심 주체인 20~30대 청년 세대의 경제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저이자 기조와 자산가격 붐이 조성되고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음.
- 생애주기상 본격적인 경제생활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는 독립가구 형성을 위한 주거 마련 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이 중요한 재무 목표일 수 밖에 없음.
 -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 양상은 자산시장에서 청년세대에게 소위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벼락거지', '오늘이 제일 싸다' 등의 프레 임과 내러티브를 형성

❖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의 부채를 활용한 자산보유 행태와 이들 세대의 소득 및 자산분배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봄.

-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먼저 청년세대의 소득분배 여건을 살펴보고,
- 다음으로 청년세대의 부채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부채측면을 조망하며,
- 그리고 이러한 부채와 자산간의 관계를 세대별로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자산분배 상황을 순 자산 측면에서 살펴봄.

5

II

세대 간 가계재무 상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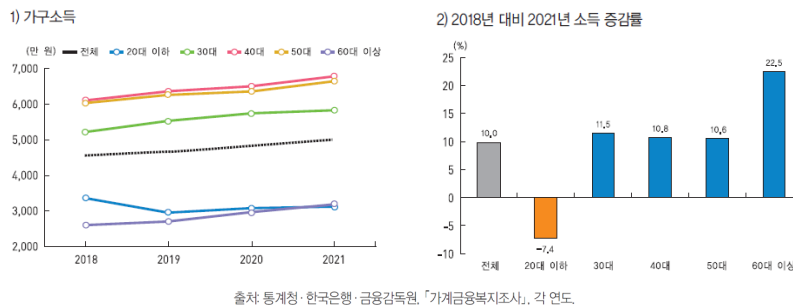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 가계소득

- ❖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와 달리 특정 업종과 계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업종,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업종은 20~30대의 비중이 작지 않음.
 - 이러한 변화가 20~30대 청년세대의 소득분배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음.
- ❖ 전체 가구 소득은 2018년 대비 2021년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의 경우 -7.4%로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
 - 다른 대부분의 연령대는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2]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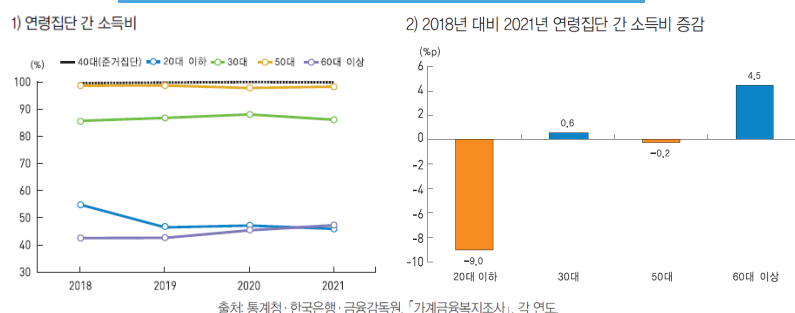
7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 가계소득

- ❖ 코로나19 전후 이러한 20대를 중심으로 한 낮은 소득 증가 내지 감소는 세대 간 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임.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생애주기 상 가장 높은 소득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40대인데 이들의 소득과 청년세대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20대는 40대의 소득에 50% 수준인 반면, 30대는 40대의 80% 후반 수준에 해당
 - 연령집단 간 소득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30대와 50대는 시간 경과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는 반면, 20대는 지속하여 하락하여 그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60대 이상은 오히려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가구주 연령집단 간 소득 격차, 2018-2021



8

1. 가계소득

❖ 정리하면 시장소득 측면에서 소득분배 여건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선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이전지출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존의 다른 경제·사회적 충격과 달리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대 연령층에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 충격이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 계층의 분배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함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등은 청년세대의 부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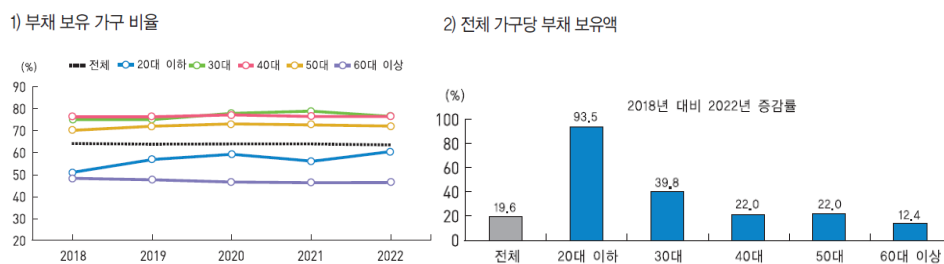
9

2. 가계부채

❖ 연령대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과 부채보유액의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20~30대 청년세대의 부채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음.

- 2018~2022년 기간에 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64% 내외로 큰 변화 없이 약간 감소한 반면, 20대는 2018년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50.8%로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2022년에는 60.4%로 9.6%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가구의 부채보유액 증가세도 전체 가계신용의 증가를 반영하듯 2018년 대비 2022년 19.6% 증가한 반면, 20대는 무려 93.5% 증가하였고, 30대는 39.8%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음.

[그림 4]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 보유가구 비율 및 부채 보유액, 2018-2022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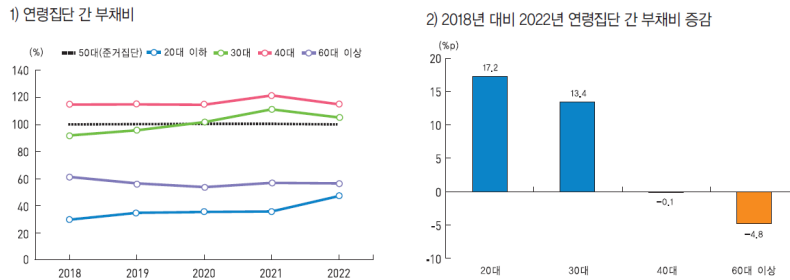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2. 가계부채

❖ 연령대별 부채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 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부채보유액과 다른 연령대의 부채보유액을 비교해 부채 격차 추이를 살펴보았음.

-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의 축소가 현저하게 드러남.

[그림 5] 가구주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 2018-2022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20대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의 낮은 상승과 정채 그리고 사업소득 비중의 확대 및 낮은 재산소득은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시킨 배경 요인으로 보임.

- 단순히 부채를 지는 것뿐 아니라 이들 세대의 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부채 확대가 자산 증대로 이어질 경우 보유자산의 종류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가 보유한 부의 규모와 분배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다음에서는 가계자산 추이를 살펴봄.

11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 가구당 자산보유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30.3% 증가

- 부채 증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청년세대의 경우 높은 자산 증가를 나타냈으나 부채 증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부채 증가율보다 오히려 자산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20~30대 청년세대와 자산규모가 가장 큰 50대 간 자산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그 축소 폭이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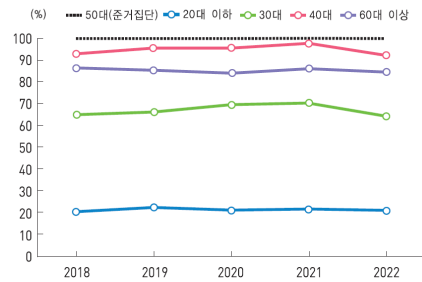
- 20대는 2018년 대비 2022년 자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그 격차가 가장 크게 축소되었음.
- 전반적으로 자산 격차의 축소는 부채의 접근성 개선에 비해 그리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났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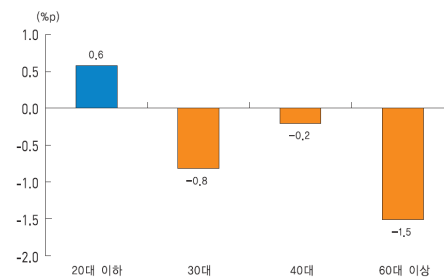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그림 6] 가구주 연령집단 간 자산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자산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자산비 증감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3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 ❖ 전체 가구의 경우 실물자산은 2018년 대비 2022년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자산은 그보다 낮은 17.2% 증가
 - 연령대별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대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의 증가율 차이가 미미한 반면, 40~50대는 실물자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자산 증가가 대체로 실물자산 증가에 기인
 - 실물자산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다도 2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진 반면, 20대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거나 보유 비중이 시기에 따라 낮아짐.
- ❖ 금융자산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실물자산 보유가 낮은 청년세대의 금융자산 증가가 두드러짐.
 - 특히 20대의 경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36.5%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30대는 26.8% 증가해 그 다음으로 높았음.

14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 20대의 경우 소득이 동 시기에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부채의 빠른 증가와 관련 있어 보임.

- 가구의 금융자산은 저축에 해당되는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집계함.

❖ 전체 가구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7%에서 2022년 29.5%로 3.8%p 상승하였음.

- 전월세 보증금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아직 내집 마련이 어려운 20-30대가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8년의 경우 20대는 56.4%로 모든 연령대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47.8%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2022년의 경우 20대의 전월세 보증금 비중은 70.1%로 2018년 대비 13.7%p 상승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음.

15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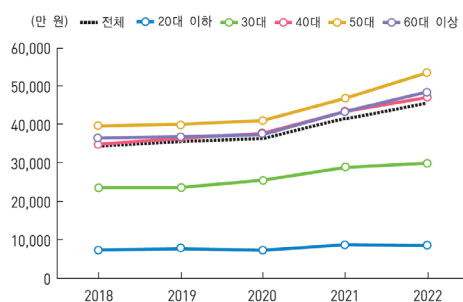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018년 대비 2022년 가장 낮은 순자산 증가를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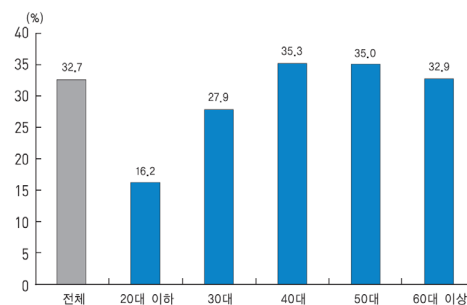
- 20대는 코로나19 전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부채 보유를 통해 자산도 함께 늘려 대차대조표가 확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낮은 순자산 증가세를 보였음.

[그림 7] 가구주 연령집단별 순자산, 2018-2022

1) 순자산



2) 2018년 대비 2022년 순자산 증감률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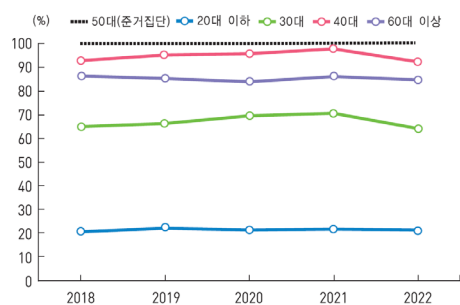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 순자산이 가장 높은 50대와 20~30대 청년세대 간 순자산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격차가 오히려 커졌는데, 이 기간 20대는 순자산비가 2.6%p 하락했으며, 30대는 3.1%p 하락해 그 격차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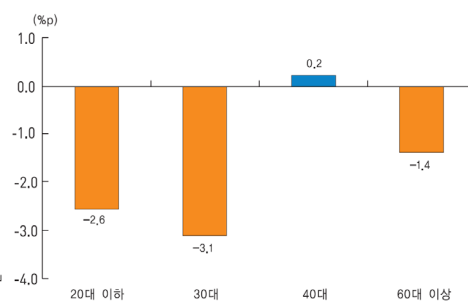
- 20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와 최고 순자산 계층인 50대 간 순자산 격차는 부채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8] 가구주 연령집단 간 순자산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 증감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7

3. 가계자산 및 순자산

❖ 전반적으로 20~30대 청년세대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보유자산이 주로 임대보증금 위주로 증가하여 자산 가격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해 순자산이 부채의 증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현상이 최근 순자산 불평등을 지속 증가시키는 배경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청년세대의 부채가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역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18



III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 ❖ 청년세대는 코로나19 전후 상대적으로 정체된 근로소득과 낮아진 금리하에 부채를 활용한 주거 서비스 이용과 위험도 높은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순자산은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의 불평등이 코로나19 전후 악화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전후 20~30대 청년세대는 부채 활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이지만, 이러한 이들의 높은 부채는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와 주택가격의 불안정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임.
- ❖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향후 고령화 대응에 있어 핵심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개선이 필요

1. 결론 및 시사점

- ❖ 더욱이 이들 세대에게 필요한 안정적이고도 부담가능한 주거 서비스의 제공 역시 시급함.
 -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정이 대출을 통한 주거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졌으므로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을 통해 부담가능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이미 높아진 부채와 낮은 소득 등으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사회안전판으로 필요함.

21

감사합니다
THANK YOU



발표 2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권현지 |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노조 조직률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권현지 (서울대학교)

국제 추세 속 한국의 노조조직률 동향

팬데믹 이후 지구 곳곳에서 노동자 집단행동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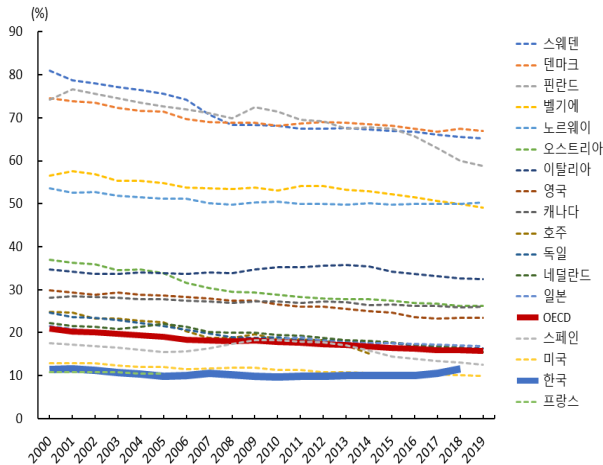
-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임금 인상 요구
- AI 를 활용한 디지털 복제 규제 요구 등 새로운 노동조합 이슈 부상
- 그러나 지난 30-40여년간 크게 저하된 노조조직률 추세는 지속

한국의 경우, 분규 증가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비교적 뚜렷한 조직률 증가 추세가 관찰됨

-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퇴장 및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청년 세대의 부상이
교차하는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현상

조직률 변화와 함께, 노사관계 및 노조관련 인식의 변화 추이 고찰

노조조직률의 국제적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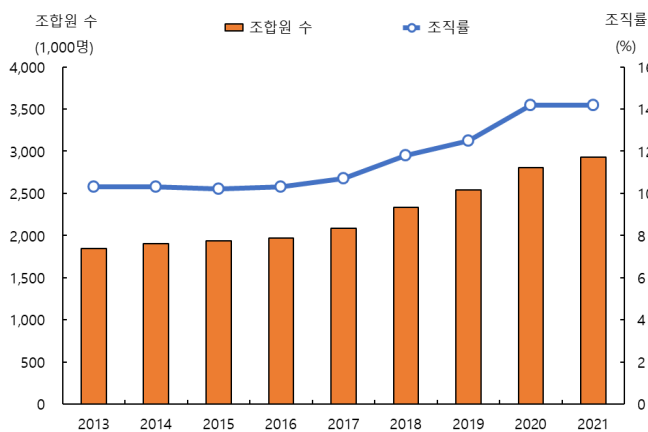
주: 1) 노조조직률 = 전체 노동조합원 수 / 전체 임금 근로자 수 × 100
2) 국가는 2000년 노조조직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OECD, "Trade Unions: Trade union density (Edition 2021)",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2911a3a7-en>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분포한 주요 산업 선진국 전반의 현상: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

- 탈산업화를 포함한 산업구조 변화
- 소비사회 심화에 따른 노동자의 개인주의 성향 증가
- 기업의 개인별 인적자원관리 고도화와 노조 회피 전략,
-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와 관료화 경향 등

주요국 노조의 재활성화 시도가 확산되고 있고, 최근 주목할만한 노조 결성 사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화가 조직률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음

한국의 최근 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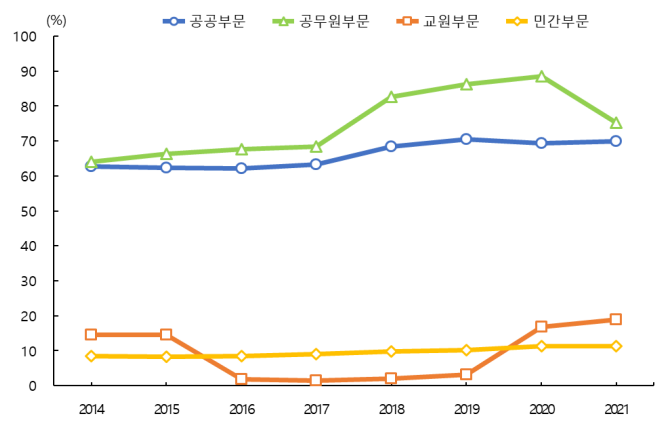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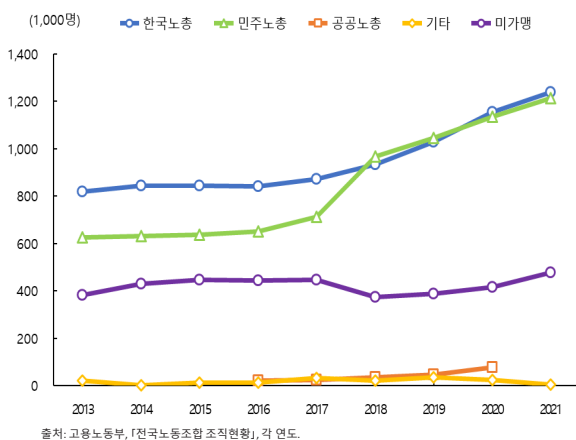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의 공식 집계상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10.3%에서 14.2%로 현저히 증가

- 고용규모의 안정적 증가세를 고려하면, 조직률 증가는 조직노동자의 순증 반영
- 조합원수: 23년 184만명 → 2019년 254만여명 → 2021년 293만여명 등 연평균 약 6%의 지속적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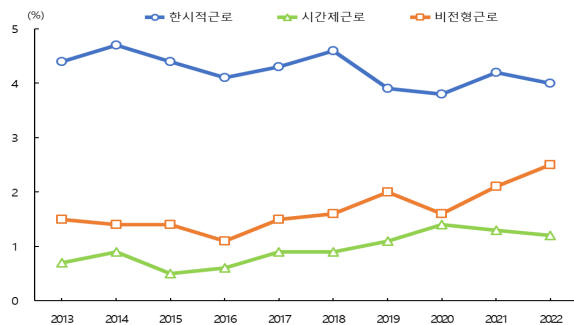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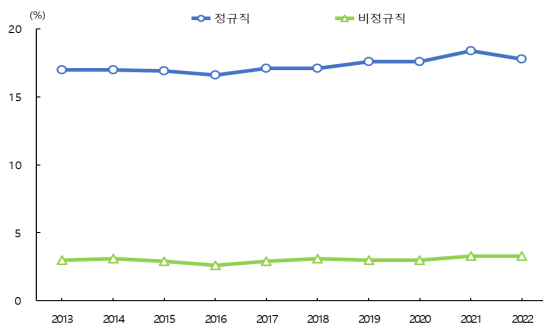
조직률 상승에 작용한 부문별 변화

- + 정책효과: 2017년 전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전환직의 노조유입이 전체 증가의 주요인으로 주목됨 (왼쪽 그림),
- + 그 뿐만은 아님. 민간부문에서도, 2014년 8.4%(164만 여명), 2018년 9.7%(192만 여명), 2021년 11.2%(214만여명)로 7년간 2.8%p 증가 지속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노조가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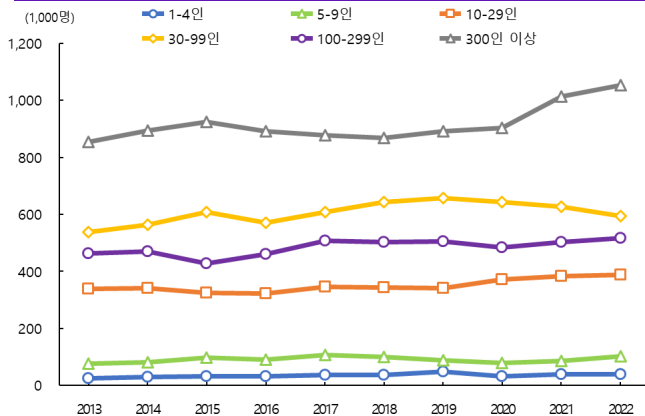
- + 고용노동부의 전국노조조직현황에 비해 한층 완만한 변화 추세
- + 노동시장의 분절 구조에 따른 노사관계 및 대변기제의 이중화 반영
 - 임금 노동자 중 노조 가입 가능자는 18.3%에 불과. 이들에 국한하면 가입률은 67.2%에 이릅니다
 - 한국에서 노조조직률은 개인 선택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위치에 더 좌우되는 경향: e.g. 2019년 노조 가입가능자: 정규직-25.8%, 비정규직-5.2%; 가입대상자 중 가입률: 정규직 68.2%, 비정규직 57.9%
- + 2016년 이후 노조 가입률의 상승폭 역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서 큼. 정규직 1.2%p 상승, 비정규직 0.7%p상승
- + 그러나, 비정규직 중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높은 비전형 및 시간제 노동자 가입률 증가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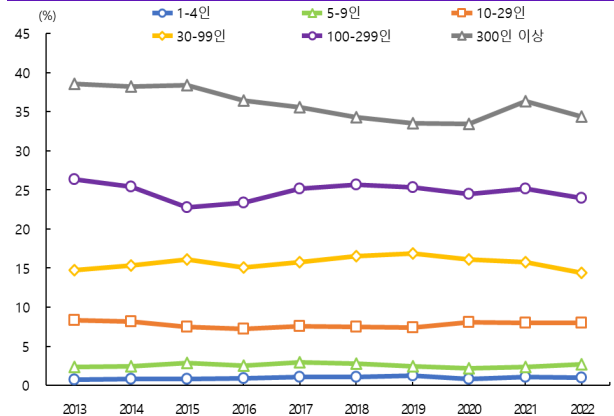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노조가입률 추이:사업체 규모 및 산업별 노조 가입률 추이, '13-'22

- + 사업체 규모별,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조직 성장이 두드러짐. 영세 사업체의 노조조직화에도 작은 변화 (소폭 증가) 발견

1) 노조 가입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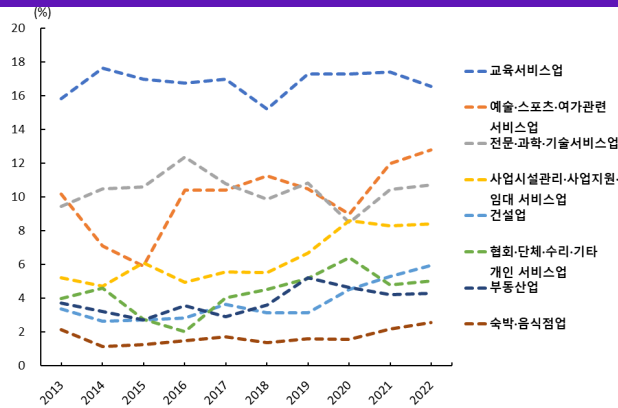


2) 노조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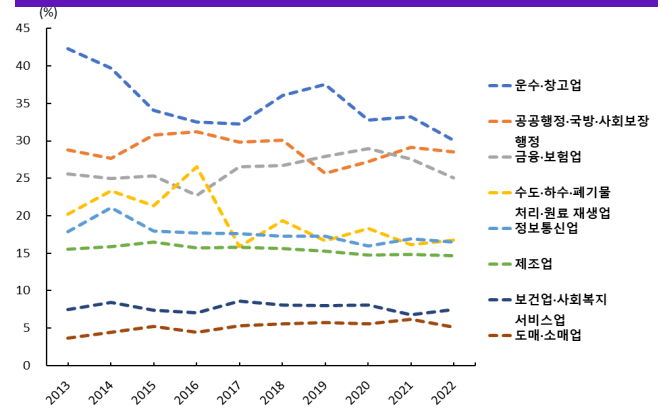


- + 산업 대분류별, 2018년 대비 2022년에 가입률이 증가한 주요 산업은 건설업(2.8%p),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2.9%p) 등. 숙박, 음식점/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도 소폭 증가.
- + 반면, 제조, 운수, 창고, 정보통신업은 감소 추세
- + 제조업 가입률 감소에도 노조 가입률의 전반적 증가는 한국 산업구조 변화가 노조 조직화에 추가적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함의.

1)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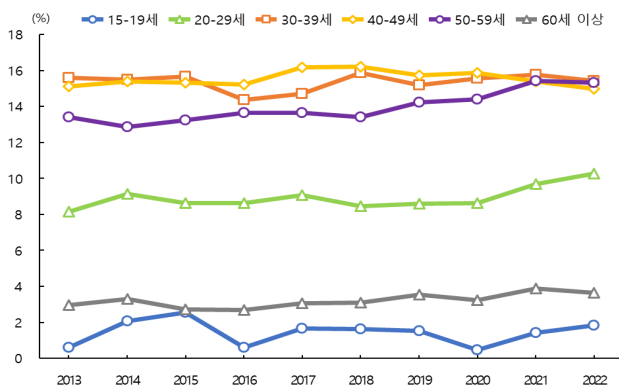
2)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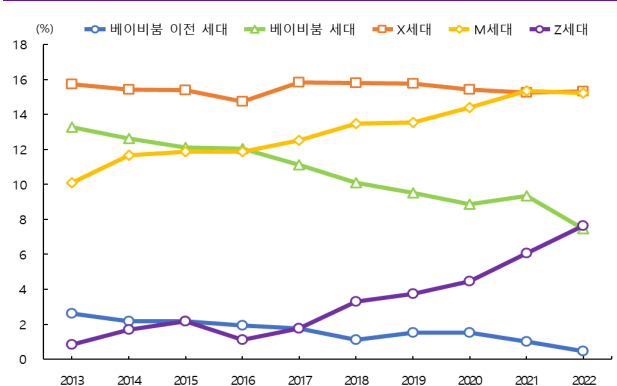
세대별 노조조직률 추이

- + 1980년대말, 1990년대 출생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노사관계분야에서도 세대에 대한 관심 고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청년세대의 등장이 노조 조직률 감소세와 직결되지는 않는 양상
- + 2022년까지 40-49세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노조가입률 증가; 노조가입률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20, 30년대 젊은 층
- + 베이비붐 (이전)세대의 추세적 감소, X 세대의 유지, M과 Z세대의 추세적 증가

1) 연령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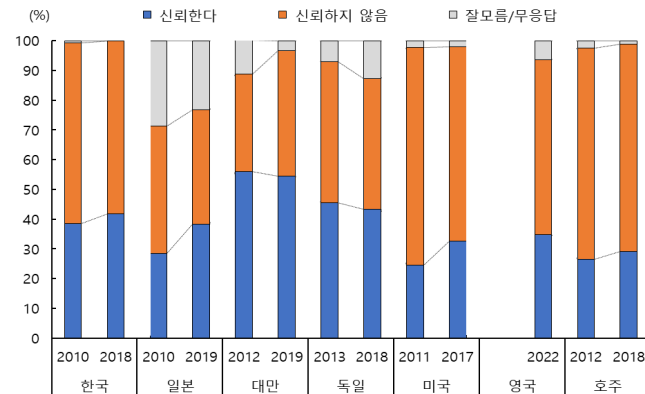
2)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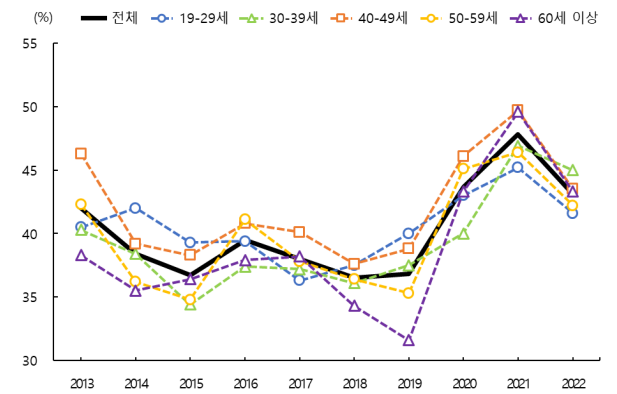
개인 노조 가입 성향의 변화? 주관적 인식에 따른 행위 선택

- + ‘세계가치관조사’ 결과 2010년대 후반의 노조신뢰정도가 2010년대 초반에 비해 미세하게 증가
 - 한국의 경우 노조에 대한 신뢰와 비신뢰의 응답이 4:6 정도로 비등; 노조에 대한 이질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공존하는 사회
- +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노조 상승률이 상승세를 보인 2010년대 후반이후 노조 신뢰도 변화가 뚜렷.
 - 모든 연령 집단에서 2018년 이후 신뢰도 증가, 특히 30대 청년층의 신뢰 정도가 2018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 20대의 노조 신뢰도 증가가 특기할 만. (CF. 2022년 변화)

1) 주요국의 노조 신뢰도 변화: 2010-2019



2) 「사회통합실태조사」상 연령별 노조 신뢰도: 2013-2022



청년 세대 조직를 변화는 연대의식의 반영? 노동조합 도구성 인식

+ 부당대우, 고용안정, 임금인상 세 측면에서 노조의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2017년 기점으로 증가 추세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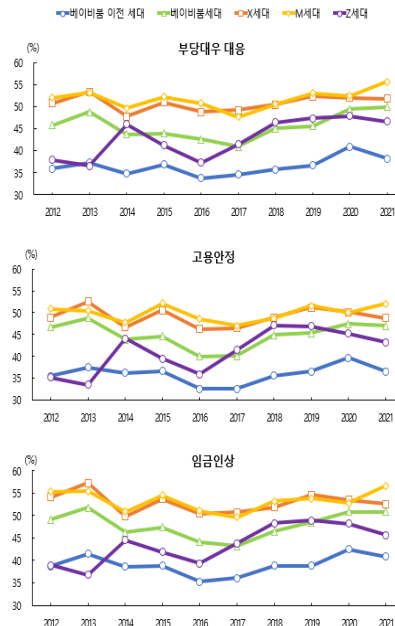
+ 고용형태별로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관련 도구성 인식은 일용직 집단에서, 부당대우 대응은 상용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 세대별로, M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 Z세대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고, 역시 2017년 이후 전반적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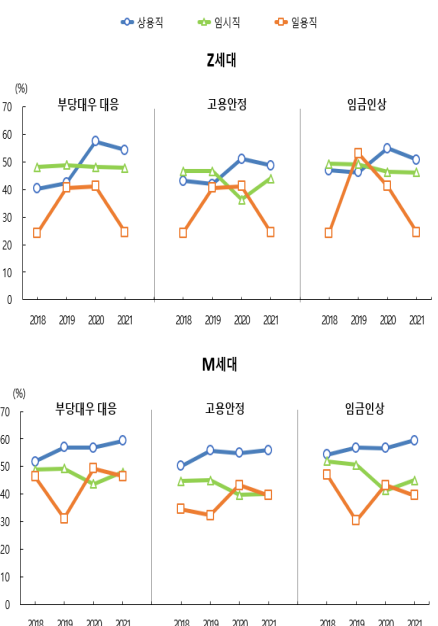
+ 청년세대에서 2017년 대비 2021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 시기상의 특징 및 노동시장 진입/ 상태 안정화와 관련된 변화

- Z세대에서는 부당대우 대응에, M세대에서는 임금인상과 부당대우 대응에 대한 노조 도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평가

1) 세대별 노조 도구성 평가: '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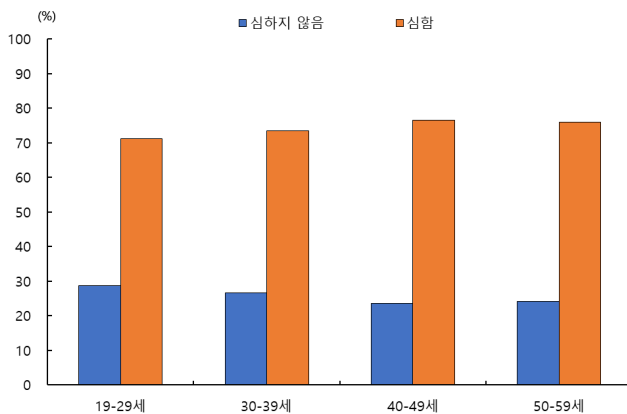
2) MZ세대 중사상지위별 노조 도구성평가, '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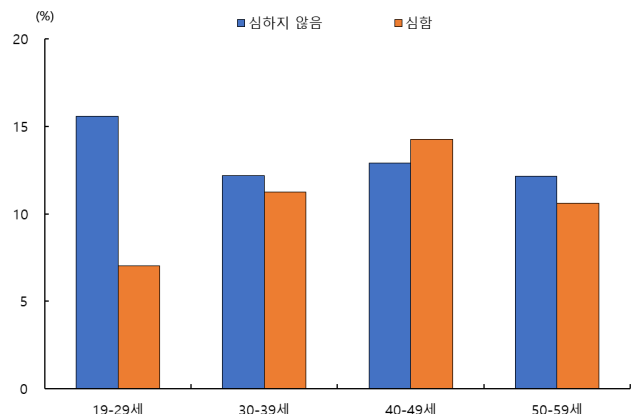
연령집단별 노사관계 인식과 노조가입률

+ MZ 세대 노조 도구성에 대한 효능감과 노조 참여 사이에는 노사관계 인식이 개입. 즉,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노조가 실용적 도구성을 높이고, 그 기대감이 노조 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1)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



2)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별 노조 참여율



2022-23년의 변화와 정책 시사

- + 최근 1-2년간 통계에서 발견되는 노조 조직률 하락세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 정비: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다소 하락
 - 노동시장 상황 반영: 노조가입과 일자리가 긴밀하게 연결된 건설업 등에서 경기 및 고용 하락의 영향
 - 노사관계 긴장 고조: 추세에 대한 지속적 관찰 필요
 -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사회통합조사나 KLIPS 조사에서도 노조 인식 및 도구성 인식 다소 하락
- + 한국 사회의 노조 조직률에는 이념, 성향보다 상황인식이나 노조도구성의 영향이 큰 경향. 노사 갈등인식이 낮은 경우 조직참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청년세대의 특징도 이와 관련. 노조에 대한 효능감에 따른 가입률 양상은 노조의 전략 및 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 + 반면, 영세 취약 부문의 최근 조직률 증가세에도 주목할 필요. 사용자 특징이 어렵고 사용자의 자원 동원 능력 역시 낮은 이 부문의 특성상 갈등적 노사관계 전개 가능성 높아.
- + 정책시사:
 - 노동시장 격차 완화/통합성 증진은 분산적 구조를 지닌 노조의 조정 역량과 관련(이중의 이중화 극복).
 - 영세 취약 부문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노동시장 정책과 대표성 인정에 기반한 참여적 정책과정 구축의 필요성.



발표 3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4.3.15)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 수 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주제와 분석자료

- 발표주제
 -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불균형한가?
 - 의료시설, 의료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이용
 - 정책적 시사점
- 분석자료
 - 자료 :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보건복지부), 건강보험통계(건강보험공단) 등
 - 시점 : 2011~2020년 10년간(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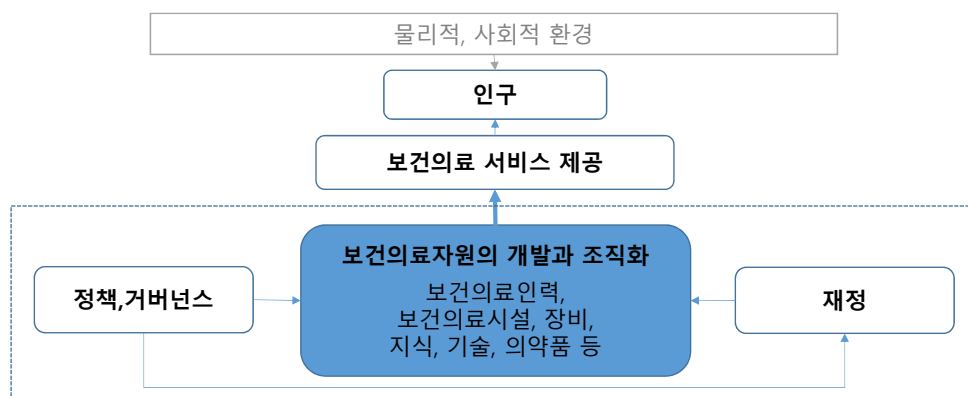
의료자원의 특성

- 의료자원 : 의료시설, 의료인력, 의료장비, 기술, 지식, 의약품 등
- 의료자원 유형별 특성
 - 의료시설 :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병원, 의원, 병상 등)
 -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등 다른 의료자원을 동반
 - 의료자원의 전반적 배치와 지리적 접근성에 영향
 - 의료인력 : 의료서비스 제공자, 공급자(의사, 간호사 등)
 - 의료서비스의 노동집약적 특성
 - 면허를 통한 노동 공급의 독점적 권한
 - 수요-공급간 시간적 격차
 - 의료인력의 질적, 양적 수준, 분포가 의료서비스 성과를 결정

Page 3

의료자원의 의미, 중요성

-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Kleczowski BM, Roemer MI, Van der Ertff, 1984)



-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 유지, 관리해야 하는 고정 비용 성격
- 필요에 맞지 않는 너무 적거나 많은 양의 자원은 비효율성과 변이 유발
- » 자원공급의 과부족을 줄이고 효율성을 지향, 자원간 상호작용이 중요(WH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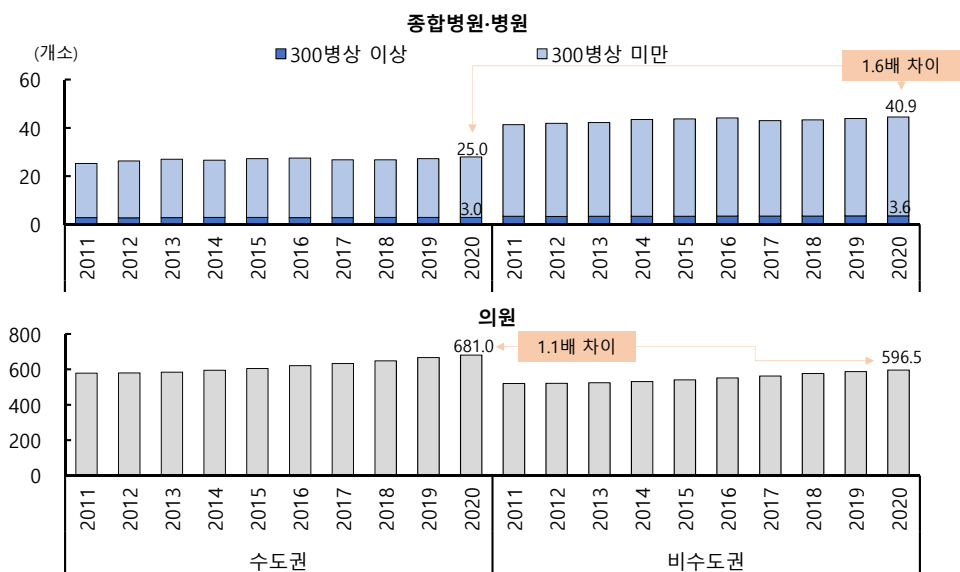
Page 4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

h-well
국민건강보험

지역유형별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수 차이

- 인구수 대비, 병원 수는 비수도권이 많고, 의원 수는 수도권이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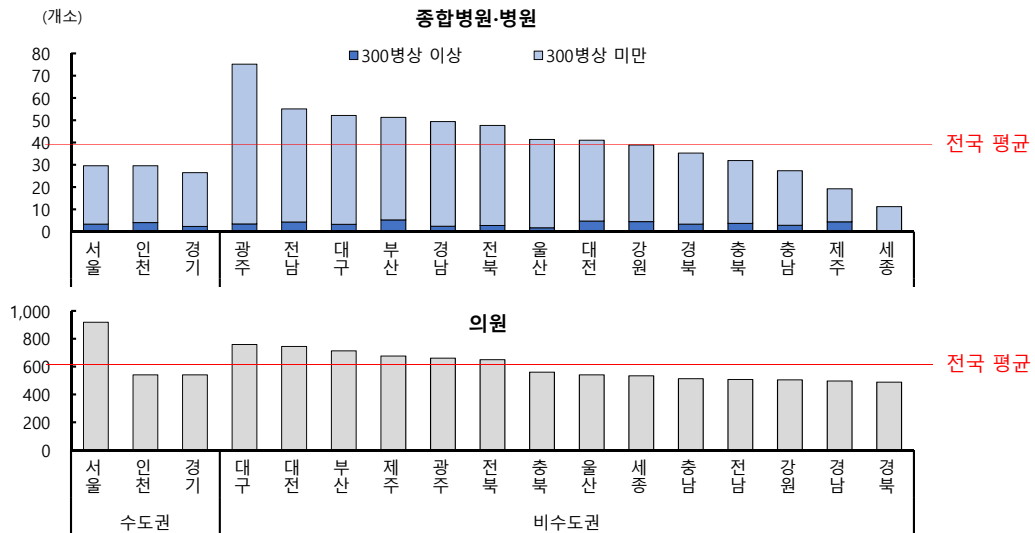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6



시도별 인구백만명당 의료기관 수 차이(2020)

- 지역유형 내(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존재. 병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양상
- 비수도권 중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 병의원 수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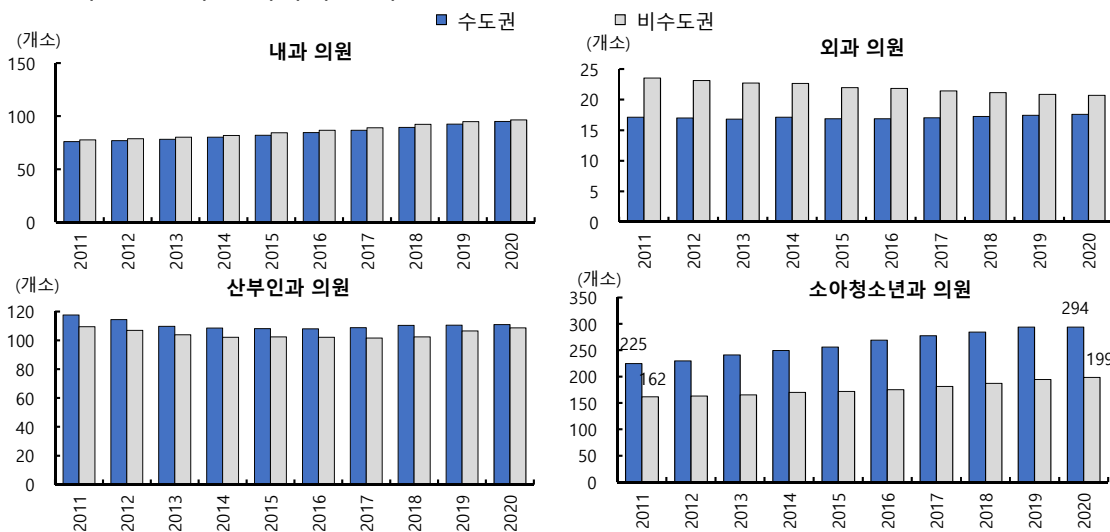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7

주요 진료과목의 인구백만명당 의원 수 차이

- 내과와 외과는 비수도권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수도권에 많은 공급
- 소아청소년과는 격차가 심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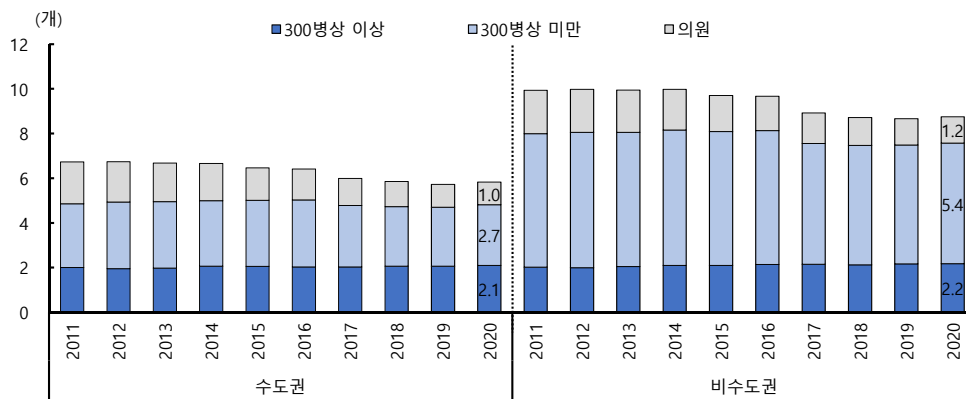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 내과와 외과는 전체 인구수, 산부인과는 15~49세 여성 인구수, 소아청소년과는 0~19세 인구수 적용

Page 8

지역유형별 인구천명당 병상수 차이

-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기관수도 많고 병상수도 많은 편
 - 의료기관 유형별로 300병상 이상, 의원 병상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유사
 - 300병상 미만의 병상수 차이가 큰 편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유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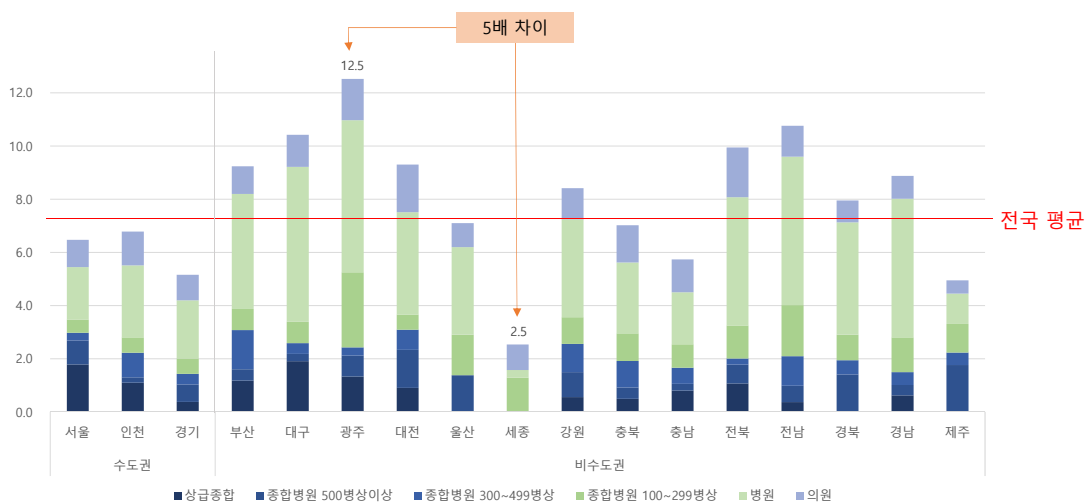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9

시도별 인구천명당 병상 수 차이[2020]

- 시도별 격차 존재, 차이는 주로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병상수의 차이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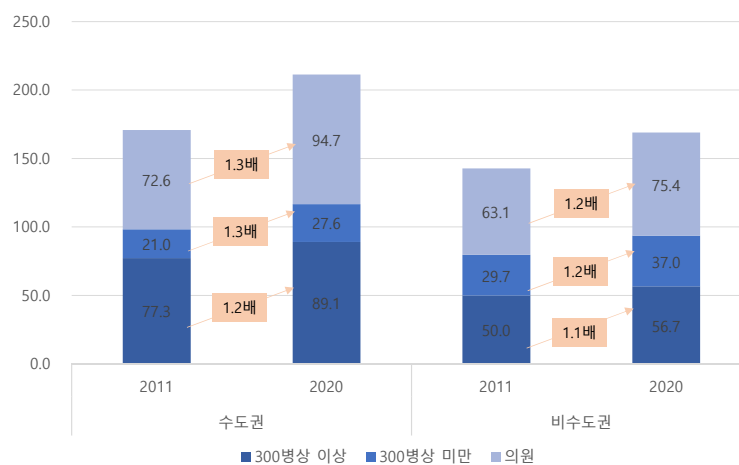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h-well
국민건강보험

지역유형별 인구십만명당 의사수 차이

- 수도권의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많고, 증가율도 높은 편
 - 병원 수, 병상 수와 다른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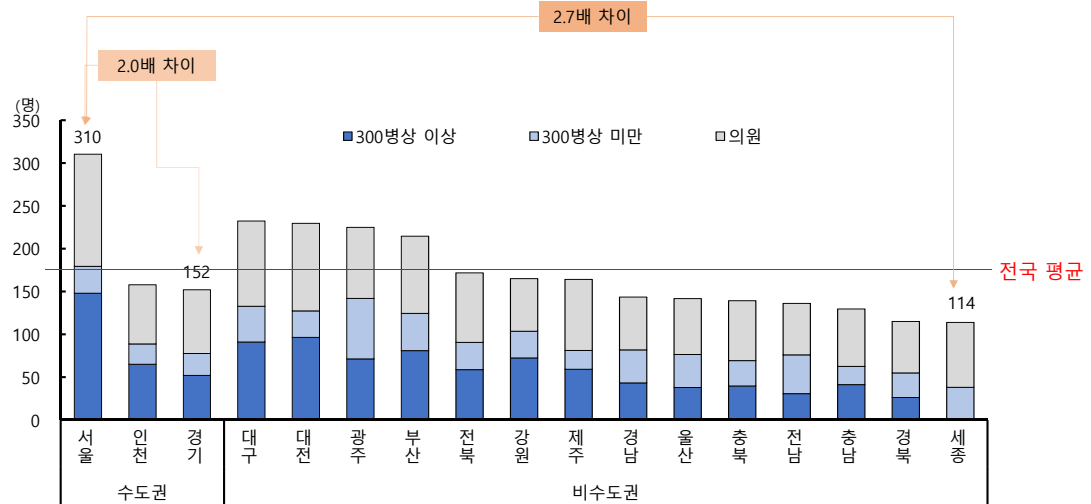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12

시도별 인구십만명당 의사 수 차이(2020)

- 시도별 격차 존재(서울-경기 2.0배, 서울-세종 2.7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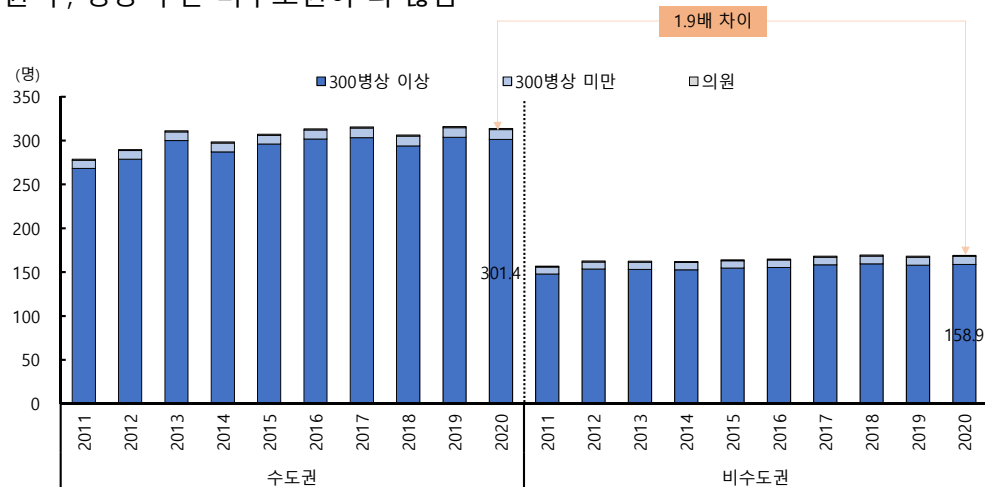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13

의료기관당 의사수 차이

- 지역유형별 의사수의 차이는 의료기관수의 차이가 아니라 의료기관당 의사수 (특히 300명상 이상)의 차이에서 비롯
 - 병원 수, 병상 수는 비수도권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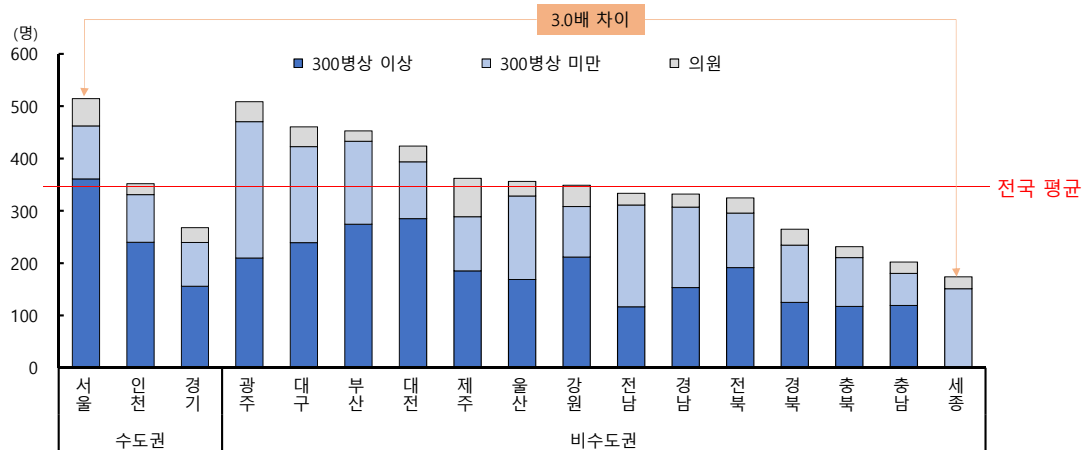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14



시도별 인구십만명당 간호사 수 차이[2020]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차이, 지역유형내 차이는 의사수와 유사한 양상
- 의사수에 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적은 편
- 최대-최소비(서울-세종)간 차이는 3.0배로 의사수에 비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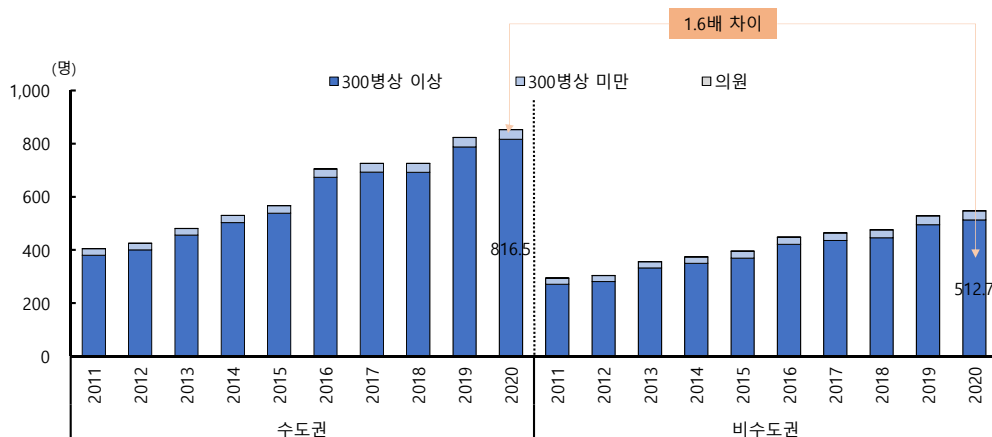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2022

Page 15

의료기관당 간호사수 차이

- 간호사 수도 의사 수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당(특히 300명 이상) 간호사 수 차이가 지역별 격차의 주요 원인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2022

Page 16

자원유형간 공급 불균형

- 우리나라는 활동하는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적고, 병상수는 가장 많은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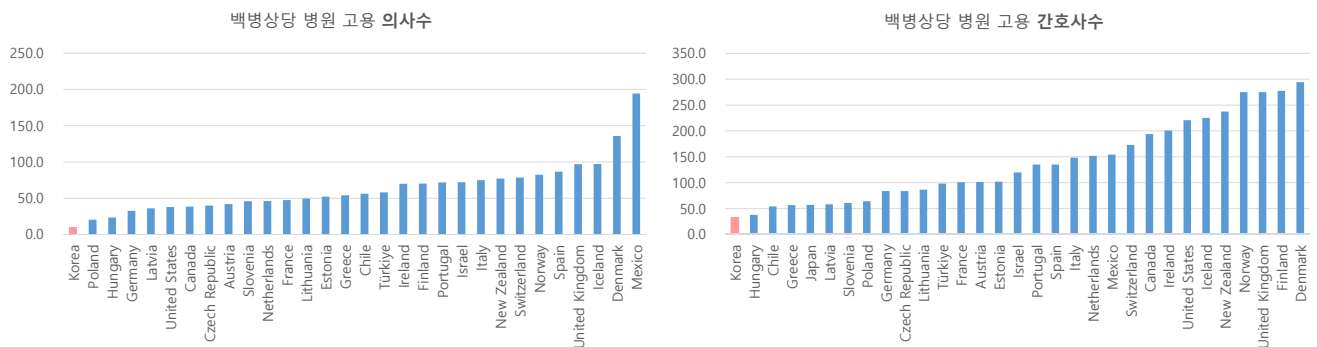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		인구천명당 활동간호사수		인구천명당 병상수	
Mexico	2.5	Mexico	1.8	Mexico	1.0
Korea	2.6	Greece	2.2	Sweden	2.0
Japan	2.6	Hungary	3.7	United Kingdom	2.4
United States	2.7	Slovenia	4.5	Denmark	2.5
Canada	2.8	Korea	4.6	Canada	2.6
France	3.2	Israel	5.1	New Zealand	2.7
United Kingdom	3.2	Poland	5.7	Finland	2.8
Belgium	3.3	Italy	6.2	United States	2.8
Hungary	3.3	Spain	6.3	Iceland	2.8
Slovenia	3.3	Estonia	6.5	Ireland	2.9
Israel	3.4	United Kingdom	6.9	Israel	2.9
Latvia	3.4	Canada	7.2	Netherlands	3.0
Estonia	3.4	Lithuania	7.9	Spain	3.0
Poland	3.4	Czech Republic	8.3	Italy	3.1
New Zealand	3.5	France	8.6	Norway	3.4
Finland	3.6	Iceland	9.8	Slovenia	4.3
Netherlands	3.9	Japan	9.9	Greece	4.3
Australia	4.0	Denmark	10.2	Estonia	4.4
Ireland	4.0	New Zealand	10.5	Switzerland	4.4
Italy	4.1	Austria	10.6	Latvia	5.2
Czech Republic	4.3	Sweden	10.7	Belgium	5.5
Sweden	4.3	Australia	10.8	France	5.7
Denmark	4.4	Switzerland	11.8	Lithuania	6.1
Iceland	4.4	Germany	12.0	Poland	6.3
Switzerland	4.4	Ireland	12.7	Czech Republic	6.7
Lithuania	4.5	Finland	13.9	Hungary	6.8
Spain	4.5	Norway	18.3	Austria	6.9
Germany	4.5			Germany	7.8
Norway	5.2			Japan	12.6
Austria	5.4			Korea	12.8

출처 : OECD Health data(2021년 기준)

Page 17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

- 병원의 백병상당 의사, 간호사수가 OECD 국가 중 꼴지



출처 : OECD Health data(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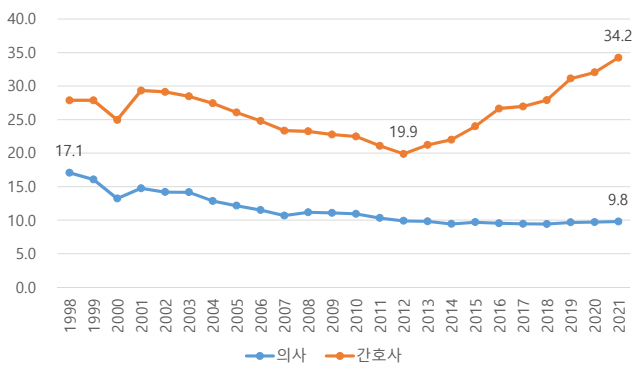
P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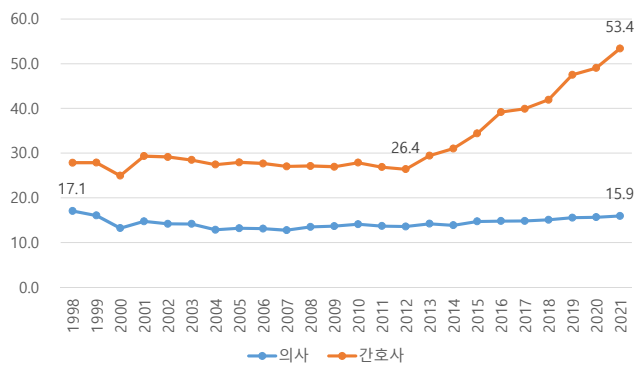
병원 근무 의료인력의 증감 추세

- (간호사) '12년 기점 병상당 인력수 증가 추세.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수준
- (의사) 병상이 증가하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가 증가하지 않음
- 노동강도의 증가로 인한 의료의 질, 의료사고 등 환자안전 위험성 문제 우려

병원의 백병상당 의료인력수(요양병원 포함)



병원의 백병상당 의료인력수(요양병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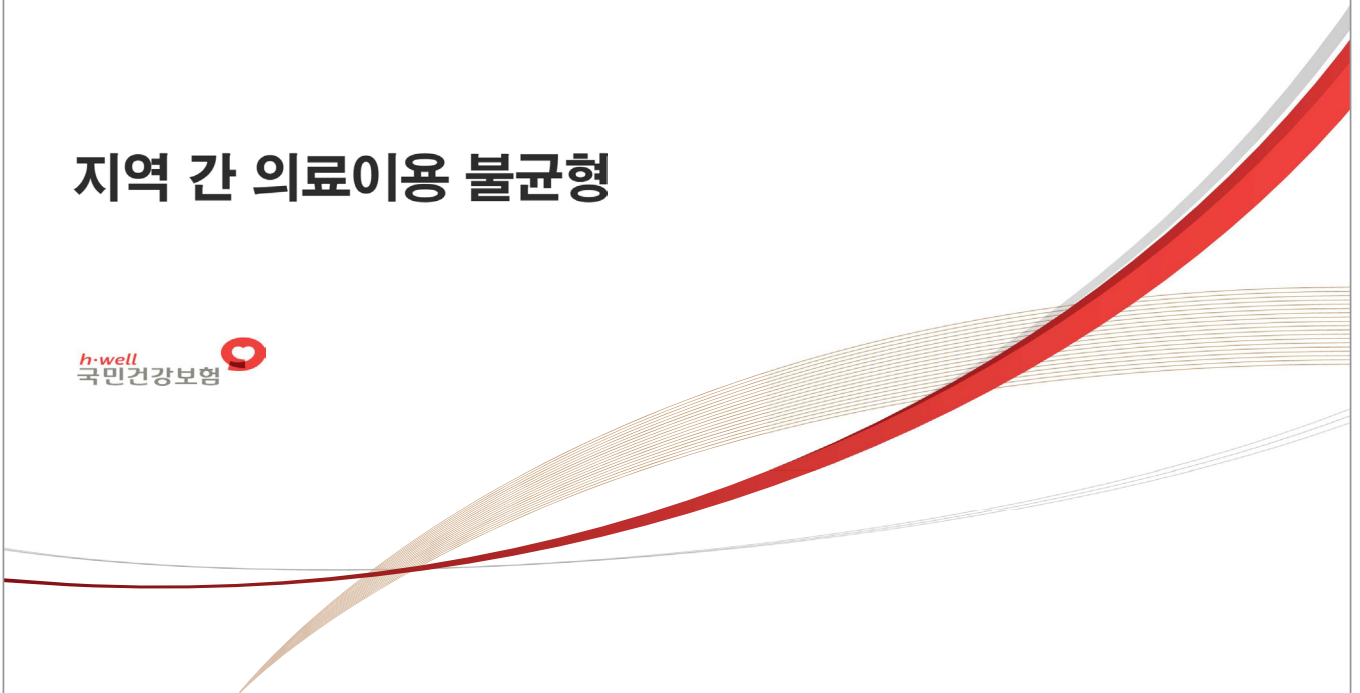


출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연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P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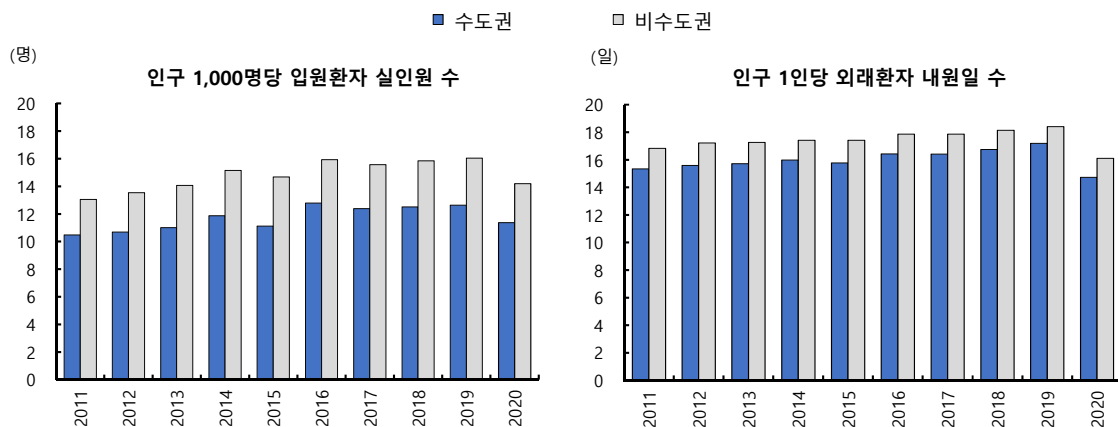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h·well
국민건강보험



지역유형별 의료이용량의 차이

- 인구수 대비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모두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환자수가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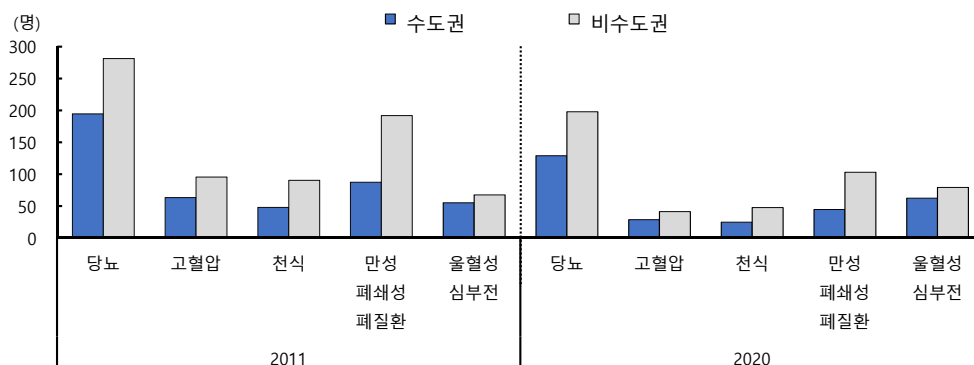
출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각연도

Page 21

지역유형별 예방가능한 입원환자수* 차이

* 예방가능한 입원환자수 : 양질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통해 입원 위험이 감소되는 당뇨 등 5개 질환의 입원환자 수(성 및 연령 보정)

- 비수도권의 예방가능한 입원환자수가 5개 질환, 2011년, 2020년 모두 높은 편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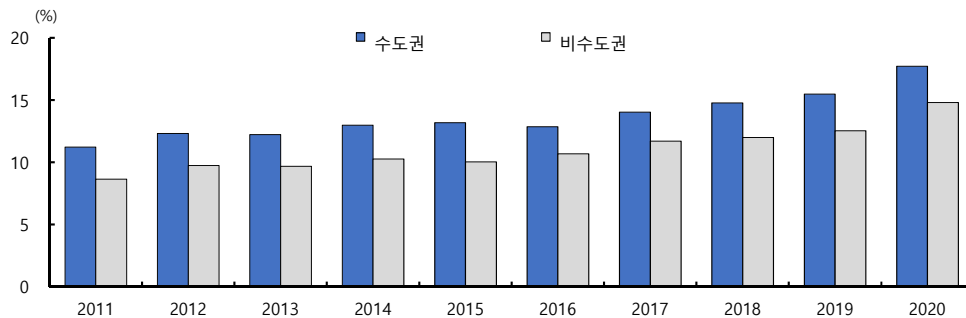
Page 22



지역유형별 고난이도 입원환자수* 비율 차이

* 고난이도 입원환자수 :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입원환자. 전체 입원환자 중 고난이도 환자 비율을 거주지 기준으로 산출

- 전체 입원환자 중 고난이도 환자 비율은 수도권에 더 많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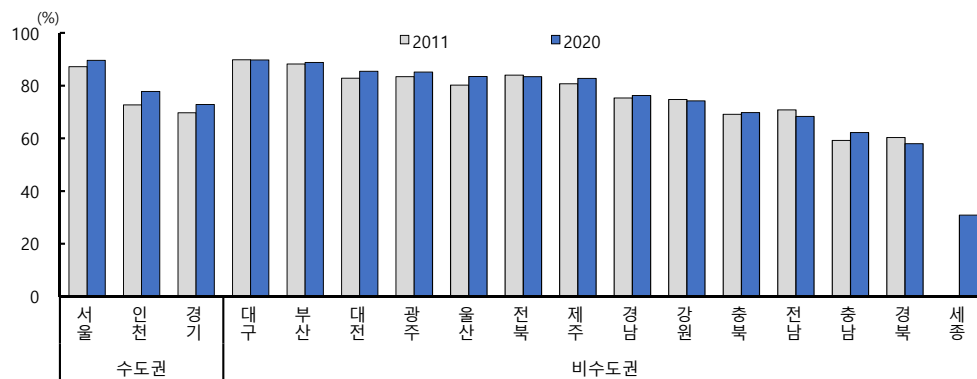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23

시도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차이

* 자체충족률 : A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입원환자 중 A지역에서 입원한 환자수 비율. 자체충족률이 높으면 유출이 적고, 자체충족률이 낮으면 유출이 많은 것

- 자체충족률 변화가 크지 않은 가운데, 강원, 전남, 경북 제외 전국적 소폭 증가
 - 강원,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인구천명당 병상수가 많지만, 의사수는 적은 지역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Page 24

결론

-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불균형한가?
 - 병원 수, 병상 수는 비수도권이 많은 편(수도권내에서도 불균형 존재)
 - 의원 수, 의료인력 수는 수도권에 많은 편
 - 특히 지역의 의료인력수 차이는 300병상 이상 병원의 병원당 인력수 차이에서 비롯

» 수도권은 병상과 인력규모가 일정 수준 확보된 의료기관 위주로 공급.
반면, 비수도권은 병상과 인력규모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로 공급
- 의료자원 유형간 불균형 심화
 - 병원과 병상이 늘어나는데 반해 병원의 인력수는 늘지 않음
 -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전반적 감소추세

Page 25

- 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이용
 - 비수도권은 환자수, 예방가능한 입원환자수가 많은 반면, 고난이도 환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단순히 병원수,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 자체충족률이 높은 것이 아님

» 비수도권의 소규모 병원 수, 병상 수 증가가 지역주민의 의료필요에 충족한다기 보다, 오히려 과잉이용 유발*

*Supply sensitive care(공급 민감서비스)
: 자원의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과잉공급이 과잉이용 유발
- 지역의료의 위기는 소규모 시설의 제한 없는 중복 공급과 자원의 분산, 필요와 무관한 공급에서 비롯

Page 26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h·well
국민건강보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 ❶ (기능 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 ❷ (네트워크 활성화)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下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❸ (협력 유인 강화)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 기관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 개선
 - ❹ (미충족 수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 확충
 - ❺ (평가·규제 혁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병원 대상 평가·규제 혁신('24~)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 ❶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대폭 상향
 - *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 * ('24년도 입시)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입학정원의 80% 지역인재 선발
 -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
- ❷ (지역 교육·수련)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
 - * 예: '지역의료학' 교실 신설,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대폭 강화 등
 - ** 예: 권역 내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역의료 특화 수련 과정 개발·운영
- 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1)

Page 29



• 지역의료 투자 확대

- ❶ (지역수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24~)
- ❷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검토

• 수도권 병상 관리

- ❶ (분원 설치 관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 강화('24)
- ❷ (병상관리 노력 유인)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 연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1)

Page 30



감사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발표 4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제 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성(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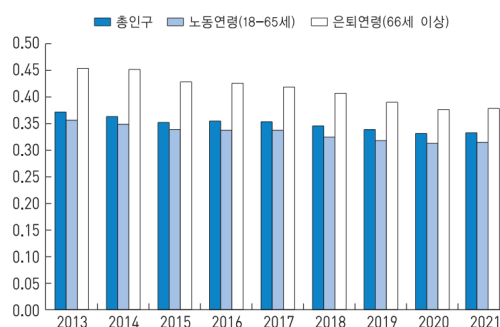
- 두 가지 다양성
 - [1] 수직적 다양성: 위계질서(상층 vs. 하층)
 - [2] 수평적 다양성: 이질적 집단들의 공존
- 인종 및 종족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수평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음.
- 이민 유입 및 다른 나라/문화권과의 접촉을 통해 조금씩 변하는 추세



다양성에 대한 관심

-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
 - [1] 세계화에 따른 경제 불평등 심화
 - [2] 자유로운 이동(이민)에 따른 국가 정체성 위기
 - [3]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확증편향
- 한국도 예외는 아님
- 세 차원에서의 다양성 인식을 검토함
 - [1] 경제 불평등; [2] 국가 정체성; [3] 사회 전통 및 규범

1. 경제 불평등과 포용: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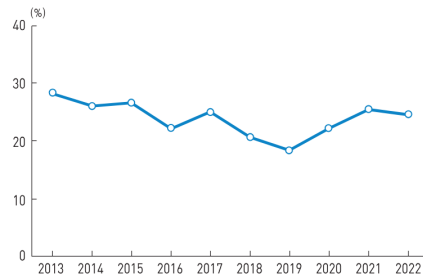


주: 1)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금공제 및 이전 후): 총 인구, 노동 연령 인구 (18-65세), 은퇴 연령 인구(66세 이상)로 구분하였음.

2)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1. 경제 불평등과 포용: 빈부격차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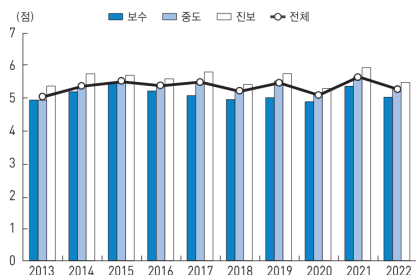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빈부격차', '권력 집중',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기타' 중 '빈부격차'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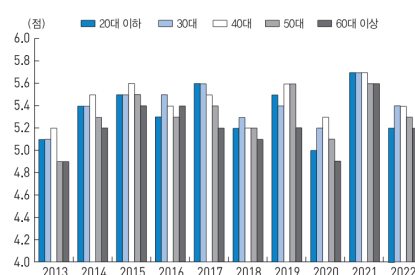
1. 경제 불평등과 포용: 이념 및 세대 차이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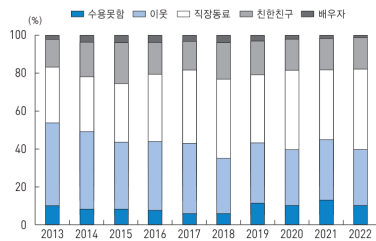
2) 통계치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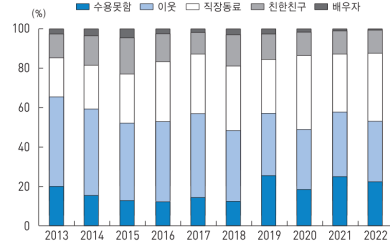
2. 국가 정체성과 포용

[1]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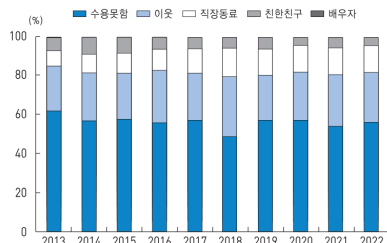
[2] 북한 이탈 주민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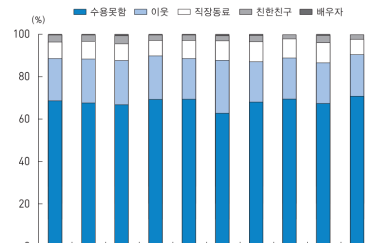
3. 사회 전통 및 규범과 포용

[1] 성소수자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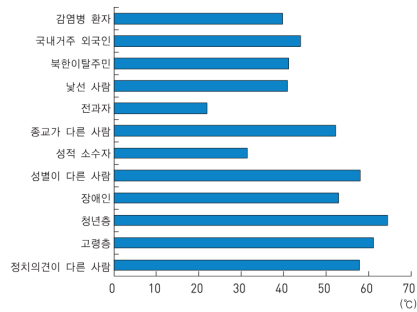
[2] 전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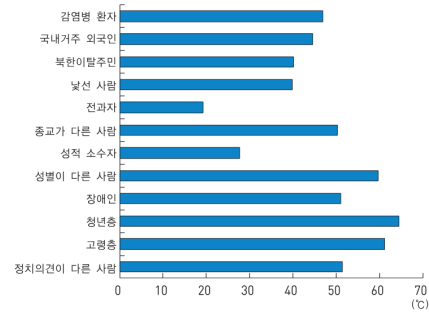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각 집단에 대한 감정 거리

1)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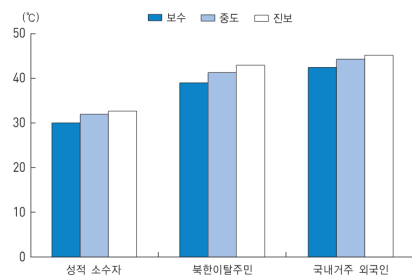


2)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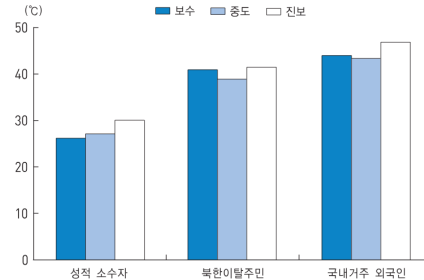


각 집단에 대한 감정 거리: 이념 성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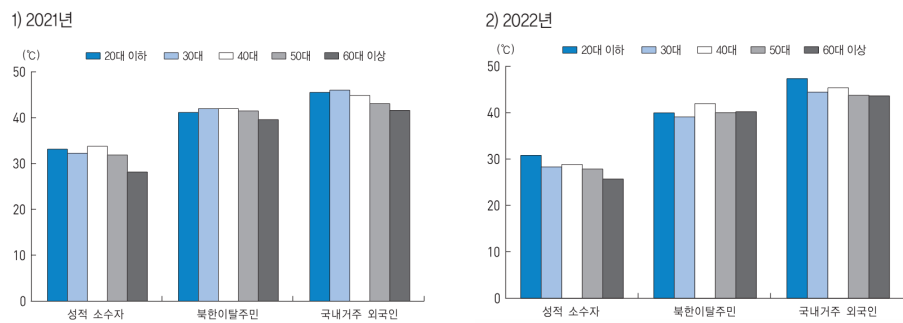
1) 2021년



2) 2022년



각 집단에 대한 감정 거리: 세대 별



정리

- [1] 경제 불평등
 - 객관적인 추이와는 별개로 심각하다고 인식함.
 -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추가 납세 의향이 높은 편임.
- [2] 국가 정체성
 - 외국인 노동자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은 아님.
- [3] 사회 규범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낮음 (전과자에 대한 수용도와 맞먹음)

시사점

- 저출산, 고령화 사회
 - 외국인 노동자 및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맞물릴 필요가 있음.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
 - 공적 영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및 북한 이탈주민은 수용
 - 사적영역에서는 여전히 배제
- 성소수자 인식
 - 개선이 불가능한 영역인가?



NOTE



NOTE



